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 에
드러난 낯선 미래로서의 파라다이스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임 지 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후의 인간』에서 메리 셸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주목하여 소설에 그려지는 이상 사회상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 영국의 정치 담론에는 프랑스 혁명이 촉발시킨 기대와 불안을 둘러싸고 세계 종말론적 두려움과 세계종말 뒤의 천년왕국처럼 찾아올 이상 사회에의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시간적 거리를 두고 기대와 불안들로 가득했던 과거의 영국을 돌아보는 메리 셸리는 파라다이스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실 낮은 미래에의 두려움을 숨기고 있으며 따라서 배타적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비판하지만, 이상의 실패에 대한 반발로 미래를 두렵고 적대적인 영역으로 규정해버리는 것도 거부한다.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불안하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1장에서는 셸리의 주인공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최후의 인간』의 주인공들은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며 결국에는 인간 상호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감응 능력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이 감응 능력을 일깨움으로써 인류 전체를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연대로 끌어들이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사랑과 감사의 조건을 이들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될 경우 이 이상은 쉽게 특정한 관습과 전통을 의무로 강요하는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 주인공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 역시 진정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정당화시키는 미래임이 드러나게 된다.

2장은 예상치 못한 재앙 전염병에 의해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세계 멸망을 불러오는 전염병은 인간의 감응 능력에 희망을 걸지만 정작 외부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거부하는 인간의 이상주의의 모순에 질문을 던진다. 전염병은 인간의 감응 능력이 치명적인 감염 가능성, 즉 예측할 수 없는 외적 영향력에 열려 있는 취약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염병과 맞서 싸워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정의된 인간다움과 인간 사회를 수호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3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서 진정한 보편적 파라다이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뒤 인류가 없는 자연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조화를 이룬 파라다이스 같지만 이 조화에서 소외된 유일한 인간 생존자 라ियो

넬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다. 이 파라다이스는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있던 주인공들의 거짓된 보편적 이상 사회상의 뒤집어진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괴로운 경험을 계기로 라이오넬은 닳선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이 파라다이스적 미래에 대한 확신 뿐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 역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지와 조우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수반되지만 이 만남은 최후의 인간이 절망적인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주요어: 메리 셸리, 『최후의 인간』, 미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보편성, 이상주의, 닳선

학번: 2011-20032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보편적 이상주의의 한계.....	12
2. 세계종말 앞의 파라다이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41
3. 불확실성의 미학: 닳선 미래의 파라다이스적 가능성	57
결론	79
인용문헌	82
Abstract	85

서론

이 논문은 이상 사회에 대한 희망의 형태와 그 문제점들이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최후의 인간』(*The Last Man*)의 인류 멸망 이야기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종말론적 공포와 완벽한 이상 사회에의 희망이 연결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에서 세계 종말(Apocalypse) 및 최후의 심판은 예수가 다스릴 이상 사회인 천년 왕국(Millennium)과 연결된다. 특히 1790년대 영국의 급진주의자(radical)들은 세계 종말론적 위기가 천년 왕국의 도래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종말론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을 비롯한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틀에 설득력을 더해 주었다. 폴포드(Tim Fulford)는 “천년왕국주의가 당대 급진주의 정치적 논의의 단순한 부가물이 아니라 급진주의 정치적 논의를 형성한 주된 담론들 중의 하나”(Millenarianism was not an addition to radical politics but one of the principal discourses in which that politics was formulated; 3)였다고 한다. 기독교적 종말론에서 이상적인 사회 천년 왕국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 기존의 사회를 대신한다. 이 천년 왕국의 비전을 이용하여 당대 급진주의자들은 당면한 사회를 개혁되어야 할 암울한 현실로 비판할 수 있었고 개혁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라신(Luc Racine)은 이상 사회의 형태들에 대해 분석하면서 인간이 사회 개혁을 통해 완벽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인 유토피아주의(utopianism)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¹ 천년왕국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시킬 수 있는 이상 사회에 대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이 이상 사회는 인류가 신화적 과거에 원래 누리고 있던 황금시대(the Golden Age)나 파라다이스(Paradise)의 수복이라고 주장한다. 즉 천년왕국주의는 사회 개혁을 신의 뜻이나 우주의 섭리

1 『최후의 인간』 소설 내에서도 주인공들의 이상 사회에 대한 믿음은 이런 천년왕국주의 즉 인간 본연의 파라다이스 수복에 대한 믿음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 사회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된 이상 사회상을 이야기할 때 이 글은 기본적으로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와 구분되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이상 사회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만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다.

로 만들어줌으로써 유토피아적 믿음을 정당화시켜주고 힘을 실어준다.

인간과 세계의 파라다이스적 본래 모습에 대한 믿음이 이상 사회 실현 계획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이론적 기반 중의 하나였으며 다탈(Gregory Dart)에 따르면 고드윈(William Godwin)을 비롯한 당시 영국의 급진주의 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친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이론에서도 볼 수 있다. 다탈은 “근대적 삶의 특징인 굴레와 장애물, 속박의 형식들이 자연인을 소외시키고 타락시킨다”(the fetters, obstacles and patterns of dependence that characterise modern life serve to alienate and corrupt the natural man; 50)고 주장하는 루소가, 인간 내면의 본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모습을 부자연스럽고 정당성 없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선하고 완벽하므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the hearts of men; Dart 24) 가장 깊은 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세계를 파라다이스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루소 식의 파라다이스적 믿음에는 이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이 내면의 소리는 유일한 도덕적 목소리이면서 사회의 “진정한 보편적 의지”(the true general will; Dart 24)의 소리이기도 하다. 파라다이스적 믿음에는 그 자신의 목소리를 이런 유일한 보편적 소리로 정의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독재나 폭력이 될 위험한 가능성이 들어 있다. 당시 천년왕국주의의 대두와 함께 절대적인 목소리의 권위를 빌리려는 각종 “자칭 예언자”(self-styled prophets; Fulford 2)들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인간 보편적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시도가 보편적인 의지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특정한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루소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로베스피에르(Maxmilien de Robespierre)의 정치는 반혁명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포 정치(the Terror)가 된다.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의향”(its own natural inclination; Dart 68)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따르는 혁명 재판부의 결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혁명 재판부는 인간 내면의 도덕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무도 피해가거나 반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 공포 정치는, 인간을 위해 비인간적인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던

파라다이스적 비전이 인간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소외시키게 되면서 스스로 개혁하려고 했던 사회의 모습을 더 악화된 형태로 재현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내부의 불순분자를 찾아내고 제거하려는 공포 정치의 시도 자체에도, 보편적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혁명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보편적 이상으로 위장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님은 혁명 정부가 사적 이익 추구나 귀족주의 등 자신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것들이 자신들 내부에 위장하고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불신의 형태”(a form of self-distrust; 42) 즉 공포 정치로 흐르게 된다고 분석한다.² 혁명 정부의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은 스스로 순수한 보편적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허위로 언제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 역시 보편적 이상주의의 허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최후의 인간』은 특히 유럽 남성의 시선에서 정의되는 보편성과 인간성을 비판한다. 존슨(Barbara Johnson)은 이 소설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절대적인 타자인 전염병을 통해 주인공들의 보편주의적, 인간주의적 담론을 해체한다고 한다. 전염병은 그들이 믿고 있던, 보편적 필연적 진보의 과정으로서의 인류 역사는 사실 “서구 남성의 이야기”(the story of western man; 265)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멜러(Arne K. Mellor)는 셸리가 『최후의 인간』에서 영웅적인 이상적 남성상, 완벽한 부르주아적 가족의 이상, 진보의 과정으로서의 인간 역사에 대한 믿음 등 당대의 “모든 문화적 이데올로기”(all cultural Ideologies; “Love, Guilt and Reparation” 169)를 해체한다고 한다. 특히 전염병은 고드윈과 퍼시 셸리(Percy Shelley)의 파라다이스적 믿음의 극단적인 표현이면서 한편으로 그 근간이기도 한, 인간 정신이 그 자신의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을 깨닫게 되면 병과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해체하게 된다(161-62).³ 전염병은 인간적 보편성의 정의에 포함

2 루소와 로베스피에르의 파라다이스적 믿음은 일차적으로는 전통 사회의 신분제적인 억압을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르주아적인 “사적 기업이라는 새 문화 역시 봉건 국가의 부패를 단지 지속시킬 뿐”(the new culture of private enterprise merely perpetrated the corruption of the feudal state; Dart 31)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사회 역시 개혁되어야 할 암울한 현실로 보았다.

되지 않는 자연과 육체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페일리(Morton D. Paley)는 이 소설에서 비판받는 이상주의는 기독교적 천년 왕국 신앙의 세속화된 형태라고 하면서 『최후의 인간』을 당대 종말론적 논쟁의 맥락에 위치시킨다. 『최후의 인간』은 “통합적인 힘”(the integrating factor; “*The Last Man*” 111)인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타락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상에 다시 파라다이스를 불러올 수 있다는 믿음을 시험하고 해체한다. 전염병은 계시록을 연상시키는 세계 종말을 불러오지만 천년왕국은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의 파라다이스의 실패”(the failure of the Paradise of Imagination; 117)를 보여주며 인간 상상력의 통합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게 된다.

인간의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을 믿는 이상주의자 에이드리언(Adrian)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 종말로 끝나는 『최후의 인간』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 비평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파라다이스에 대한 믿음의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상주의자 에이드리언은 루소처럼 인간 내면의 파라다이스적 본성을 깨움으로써 애초에 파라다이스로 설계된 세계의 타락하기 전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타인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 지상에 파라다이스를 실현하려고 한다. 소설은 1인칭 서술자인 라이오넬(Lionel)이 에이드리언에 의해 감화 받으면서 시작한다. 결국 에이드리언의 여동생 아이드리스(Idris)와 결혼하여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라이오넬, 라이오넬의 여동생 퍼디타(Perdita), 처음에는 에이드리언의 라이벌이었지만 퍼디타와의 결혼을 통해 결국 이 공동체에 편입되는 레이몬드(Raymond) 등 직간접적으로 에이드리언의 이상에 의해 감화 받는 인물들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최후의 인간』의 전반부는 왕정이 폐지된 영국의 새 호국경(Protector)이 된 레이몬드가 아내 퍼디타와 함께 가정 내에서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적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한편 영국을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에이드리언의 이상주의적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실험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실험은 보편주의적 이상의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한계를 보여주며 실패로 끝난다. 레이몬드는 파라다이스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3 존슨과 페일리로 보편적 파라다이스적 믿음에 대한 메리 셸리의 비판은 아버지 고드윈과 남편 퍼시 셸리의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것으로 읽는다.

조건으로 퍼디타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며, 인간 문명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스 독립 전쟁에 참전해 유럽 대륙의 경계 밖으로 터키 인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레이몬드는 이 전쟁의 과정에서 죽게 되며 절대 복종하는 아내인 퍼디타는 레이몬드를 따라 자살한다. 전반부를 마무리 지으며 서술자 라이오넬은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표현하지만, 이 믿음은 아들 알프레드(Alfred)의 미래에 투사되어 그의 파라다이스적 믿음 역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국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보편적인 것을 자의적으로 정의할 때 인간 보편적 본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 충동이 그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억압을 오히려 재생산할 수 있는 문제는, 사회 개혁을 꿈꾸었던 주인공들의 믿음이 이 부분에 이르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구체제와 계급 제도”(ancient institutions and hierarchies; Dart 79) 즉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던 버크(Edmund Burke)의 믿음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⁴

이렇게 후반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의 치명적인 보편성은 기존 비평들이 지적하는 대로 주인공들의 보편적 이상을 패러디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상의 한계, 즉 그들의 보편성이 잘못 정의된 허위 보편성이었음을 보여주게 된다. 만물의 본래적 조화에 대한 믿음 역시 인간 중심의 보편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전염병은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적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보편적 파라다이스 비전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 사회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디스토피아(distopia)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을 뿐이라는 결론은, 모든 변화의 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최후의 인간』은 주인공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의 한계를 비판하지만 동시에 이 한계를 넘어서는, 『유토피아의 고고학』(Archaeologies of the Future)에서 제임슨(Fredric Jameson)이 그리는 진정한 보편적 이상 사회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메리 셸리는 곧 도래할 천년왕국에 대한 당대의 실패한 믿음들의 내적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해체에서 진정한 이상 사회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보편적 이상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에 대한 비판은 유토피아적 비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유토피아의 고고학』에서 제임슨은 보편적 이상 사회를 가져오려는 시도 자체를 무용하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부정할 경우 우리는 현존하는 사회의 문제들을 정당화하고 영원히 지속시키게 될

4 라이오넬은 이 부분에서 실제로 버크를 인용한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임슨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완벽한 이상 사회를 만들어 내려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자체에 이 이상이 이데올로기적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모든 유토피아 상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 자신의 “불가피한 위치 지어짐”(inescapable situatedness; 170)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들은 어느 것도 결코 진정한 보편적 유토피아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토피아 비전들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논쟁의 여지없는 절대적인 보편적 이상이기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신의 모습대로 물들이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제임슨은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에는 “식민주의적 폭력이 내재”(the colonial violence . . . inherent; 205)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토피아주의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한 비판과 유토피아적 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은 구분되어야 한다. 제임슨은 후자를 안티 유토피아주의(anti-Utopianism)라고 부른다. 안티 유토피아주의는 현존하는 사회의 모습을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 사회를 개혁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개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현존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문제들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되며 사회에 대한 비판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가 된다. 제임슨은 인간 역사가 “아무 것도 결코 바뀌지 않고 불행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영원한 현재”(an eternal present where nothing ever changes and unhappiness is always with us; 193)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안티 유토피아적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미래를 현재의 영원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안티 유토피아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유토피아주의의 일종이다. 안티 유토피아주의도 보편적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편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며, 이런 믿음은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시도”(attempt to colonize the future; 228)가 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천년왕국적 기대들의 실패에 대처해야 했던 메리 셸리의 시대도 파라다이스적 믿음의 이데올로기적 한계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종말론에서 세계 종말의 위기가 예수의 천년 왕국을 불러왔던 것처럼 당면한 사회적 혼란이 파라다

이스적 이상 사회의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좌절되고 이런 믿음의 수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난 시점에서 파라다이스적 믿음을 비판하는 것은 쉽게 사회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안티 유토피아주의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 풀포드는 영국의 낭만주의가 파라다이스의 필연적 도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해진, 당분간, 어쩌면 영원히 악몽 같은 현실이 지속될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그리기 위한 싸움이었을 아니라 비전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싸움”(a struggle not just to envision a new age but to retain the capacity for vision at all; 14)이었다고 정의한다.

파라다이스적 확신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파라다이스 비전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식은 이 이상의 실현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치시키는 것이었다. 로(Nicholas Roe)는 이상적 공동체를 세우려던 사우시(Robert Southey)와 코올리지(Samuel Coleridge Coleridge)의 판티소크라시(Pantisocracy) 계획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통해 천년왕국적인 이상 사회의 도래에 대한 믿음이 “가족과 사적인 유대 관계에 바탕을 둔 공동체”(community based around family and private attachment; 96)에 거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며 결국은 시간적으로도 무한히 미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어(John Beer)는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와 코올리지,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공통점은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의 좌절에 대처하기 위해 파라다이스를 우주의 섭리를 깨달을 때 내면적으로 이미 실현된 것으로 여김으로써, 파라다이스를 내면화하는 동시에 자연과 우주의 섭리의 차원으로 투사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전치는 파라다이스적 믿음의 이데올로기적 한계 문제를 외면하는 해결책이다. 『최후의 인간』은 전염병을 통해 디스토피아적 현재 앞에 이런 믿음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실패 이후 라이오넬은 유일하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가능한 장소인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 은둔하는 동시에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파라다이스의 실현 시점은 먼 미래로 미루으로써 파라다이스적 믿음을 계속 간직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 지구적 악몽 같은 현실인 전염병은 모든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들어오며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적 믿음을 유지하려는 라이오넬의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적 믿음의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서스(Thomas Malthus)의 안티 유토피아주의이다. 말서스는 인간은 본능적 욕

구와 물질적 필요라는 “자연의 절대적 법칙”(an absolute law of nature; Dart 140)에 의해 영원히 지배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가 개혁되거나 이상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말서스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본능(성욕)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이므로 인구 증가율은 고정되어 있다. 역시 고정되어 있는 물자의 증가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느리지만, 이 결과 찾아오는 물질적 궁핍이 인간의 또 하나의 본능인 식욕을 이용하여 번식욕을 제어하기 때문에 인구는 항상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말서스의 이론은 수많은 빈민의 존재를 비롯한 사회의 문제와 갈등들을 자연의 섭리, 나아가 신적인 섭리의 일부로 정당화하게 된다. 빈민 구제를 사회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이런 섭리에 선불리 개입하려는 이상주의적인 시도는 인구를 통제 불가능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해리슨(Gary Harrison)에 따르면 말서스의 국민 교육 안은 그들의 삶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얼마나 지배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inform them of the extent to which their lives were ruled by economic necessity; 142) 이런 영원한 자연적 법칙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해리슨은 말서스가 사회 문제에 마치 객관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 천년왕국적 종말론의 비전과 그 수사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년왕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다. 닥트는 말서스의 이론이 “혁명의 보편주의적 원리”(the universal principle of revolution; 148)를 전유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급진주의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편적 파라다이스에 대한 주인공들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며 결국은 전염병에 의해 지배되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최후의 인간』도 말서스와 같은 안티 유토피아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전염병은 자연의 변함없는 순환에 의해 영원히 지배되는 것 같은, 인간 없는 세상을 가져온다. 혼자 남은 라이오넬은 눈앞에 보이는, 인간 없이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이며, 자신은 이 비인간적인 법칙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다른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간 사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최후의 인간』의 이야기는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다. 라이오넬과 친구들

의 보편적 파라다이스가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보편성이 아니었고 지속 불가능한 파라다이스였다면, 인간을 소외시키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의 현재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인간 없는 자연의 디스토피아적인 보편성도 진정한 보편성일 수 없다. 그러므로 소설의 결말부에서 인간은 더 이상 미래에 필연적으로 실현될 파라다이스에 대한 확신(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세계의 현재 모습이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형태라는 완전한 절망도 불가능하다. 파라다이스적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계와 미래의 낯선 성격은 안티 유토피아적 절망도 불가능하게 만들며 디스토피아적 현재가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기대했던 파라다이스가 찾아오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여 “천년왕국적인 믿음을 공동으로 재조정”(a shared renegotiation of millenarian belief; Fulford 11)하려는 당대의 사상적 맥락 속에 위치하는 메리 셸리의 소설은 파라다이스적 믿음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비판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킬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독자적인 결론을 내게 된다.⁵

남편 피시 셸리의 이상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메리 셸리의 소설은 그의

5 피쉬(Audrey A. Fisch)와 와그너-로울러(Jennifer A. Wagner-Lawlor) 역시 『최후의 인간』이 보편적 이상주의의 실패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읽는다. 피쉬에 따르면 이 소설은 무결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과 그들의 이상이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페일리나 뿔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정치적 프로그램이 다를 것 없고 희망이 없다”(all political programs . . . indistinguishable and hopeless; 273)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이 소설 서문에서는 허구적 편집자가 등장하여 액자 소설의 구성을 마련해주는 데, 최후의 인간 라이오넬의 기록을 이탈리아의 어느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편집하게 되는 이 편집자의 태도에는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 같은 “완벽성과 총체성의 정치학”(a politics of perfection and totality; 280)을 넘어서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와그너-로울러는 이 소설이 “이상적인 것의 퍼포먼스”(the performance of the visionary; 756)를 통해 인간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사회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낭만주의적인 믿음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한다. 전염병을 통해 이런 이상이 연극적인 거짓에 불과할 가능성이 드러나며 전염병은 라이오넬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죽임으로써 인간적 공감의 가능성을 뿌리부터 제거해버린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받아 읽는 액자 부분의 편집자와 독자(즉 우리 자신의) 존재는 인간이 인간에게 공감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는다. 이 장치는 이 소설의 주인공들의 “유토피아적 노력의 대안적 비전이 될 만큼 일관성 있는 어떤 것”(anything so coherent as an alternate vision to the utopian efforts; 772)은 아니더라도, 인간 사회의 가능성을 작가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런 비판들의 맥락을 따르면서 최후의 인간의 결말 부분에 암시되는 작은 가능성이 발견되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유토피아와 안티 유토피아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액자 부분의 편집자의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자 속 이야기의 주인공들 자신도 이런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며 찾아낸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파라다이스적 믿음을 시험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풍에 부치는 시」 (“Ode to the West Wind”)에서 퍼시 셸리는 세계를 변혁하고 미래를 가져다줄 바람에 희망을 건다. 바람이 변화를 싣고 오기는 하지만 그 변화가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적 계획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인류를 전멸시키게 되는 최후의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미래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확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최후의 인간의 주인공 라이오넬의 최종적 결론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낯선 미래의 가능성이 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최후의 인간』의 액자 형식의 서문에서 익명의 편집자는 동굴에 흩어진 나뭇잎들의 형태로 라이오넬이 남긴 기록을 전해 받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최후의 인간이 아니며 따라서 미래의 미지의 독자에게 기록이 전해질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기록을 남겼던 라이오넬의 희망이면서 동시에 「서풍에 부치는 시」의 시인이 “시든 나뭇잎들”(with'er'd leaves; 64)의 형태로 날려 보냈던 희망이기도 하다.

제임슨 역시 진정한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현재와 전혀 다른, “현재와 단절된 미래”(the future as the disruption of the present; 228)에 있다고 한다. 진정한 유토피아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하면 유토피아의 내용을 상상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모두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적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된다. 현재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인간은 정말로 낯선 미래를 상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보편적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모두 이데올로기적 억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낯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보편적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는 공간이다. 제임슨은 상상할 수 없는 낯성이라는 진정한 유토피아의 조건을 유토피아의 형식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유토피아 비전들(유토피아의 내용)과 구별한다. 진정한 유토피아주의는 “특정한 [유토피아적] 장치나 청사진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가능한 유토피아들을 상상하는 자체에 대한 헌신”(not the commitment to a specific machinery or blueprint, but rather the commitment to imagining possible Utopias as such; 217), 즉 유토피아적 형식 자체에 대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낯성이라는 유토피아적 형식은 한계를 가진 서로 다른 유토피아 비전들이 촉발되고 충돌하면서 유토피아적 폭발력을 이끌어내는 장이 된다. 이 글은 최후

의 인간 라이오넬이 이런 유토피아 비전에 도달하게 되는 긴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1장에서는 전염병이 닥치기 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에이드리언이 그리는 이상적 사회의 성격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때 이른 좌절을 경험하는 에이드리언을 대신하여 레이몬드와 퍼디타 부부가 에이드리언의 이상을 실현에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파라다이스의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한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2장에서는 전염병을 맞아 인류를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즉 당면한 위기를 오히려 파라다이스적 믿음을 다시 실현에 옮길 기회로 활용하려는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 인류적 가족 공동체는 레이몬드와 퍼디타 부부의 파라다이스가 보여주었던 한계를 다시 더 분명한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

3장에서는 결국 전염병에 의해 인류가 전멸하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라이오넬이 완전한 절망 역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 없이 돌아가는 자연 속에서 라이오넬은 아무런 변화의 희망이 없는 디스토피아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라이오넬은 미래의 근본적인 닳셈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확신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 예측 불가능함은 다른 생존자는 확실히 없으며 인류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다는 절망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1.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보편적 이상주의의 한계

『최후의 인간』의 전반부는 세계 멸망을 다루는 소설로서는 이례적으로 후반에 닥쳐올 전세계적 재난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다룬다. 소설의 전반은 영국 산골의 가난한 양치기였던 라이오넬이 완벽한 왕자 에이드리언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에 입문하게 되는 성장 이야기이며, 이들과 이들 주변 인물들이 복잡한 사랑의 화살표를 교환하며 완벽한 관계를 모색하는 연애담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후반에 전염병에 의해 시험받고 전염병과 대결을 펼칠 사상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후반의 재난과 관계를 맺는다.

소설의 전반에서 소개되는 것은 인간 본성의 회복을 통해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인간 본성은 인간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격리된 개별적 존재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개발은 최종적으로는 인류를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얽힌 하나의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성을 일깨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론적으로는 본성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만으로 이런 이상 사회를 불러올 수 있다. 외부의 영향력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 인간 본성은 관대한 행동에 의해 수혜 받는 사람이 이에 무심할 수 없게 만든다. 관대한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관대함에 걸맞는 사랑과 감사로 반응·보답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이 소설에서 인간 내면에 잠들어있는 이상 사회를 다시 불러오기 위한 공식이다.

『최후의 인간』 전반부의 성장 소설적인 면과 로맨스적인 면 모두 이 파라다이스 실현 공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라이오넬은 사랑과 관대한 행동을 통한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에이드리언의 이상에 입문함으로써 교육받고 성장하게 되며, 퍼디타와 레이몬드와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은 그들이 사랑에 교화되어 에이드리언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확산시킴으로써 실현하게 되는 파라다이스의 위험은 19세기 초반의 자선가 모어(Hannah More)의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 모어는 『최후의 인간』의 주인공들과 비슷하게 “자선의 선물 경제”(philanthropy's gift economy; Elliot 55)를 통해 형성되는 관대함과 감사의 관계를 열쇠로 당시 영국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셸리의 주인

공들과 달리 모어의 목적은 자선과 선물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 상류 계급이 권력의 우위 뿐 아니라 도덕적 우위도 점하게 만듦으로써, 부나 권력의 재분배 같은 근본적 변화 없이 사회 체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는 것이다. 관대한 선물은 그 자선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빚이나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자선에 무한한 감사로 보답해야만 할 “갚을 수 없는 빚”(an unrepayable debt; Elliot 63)으로 사회의 기존 질서에 묶여있게 만든다. 모어의 사상에서 사랑과 감사의 관계라는 이상은 기존 사회의 권력 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안정시키는 명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모어의 전제와 『최후의 인간』의 이상주의자들의 전제의 유사성은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 계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보여준다. 스스로의 관대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던 사랑과 관대함을 일깨움으로써 완벽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인공들의 믿음은, 인간 본성에 대한 앎 때문에 이미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확장시킴으로써 파라다이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 1장에서는 『최후의 인간』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이상 사회 실현 계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위험성과 허위성이 드러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사회를 개혁하여 이상 사회를 실현하려는 주인공들의 계획은 서술자 라이오넬의 친구 에이드리언에게서 출발한다. 이야기 초반에서 이미 그는 자신의 계획이 사회적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을 깨닫고 연인 에바드니(Evadne)와의 관계도 실패한 뒤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잠적한다. 겨우 회복하여 라이오넬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물이 행복한 조화를 이룬 듯한 저녁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흔들렸던 이상주의적 믿음을 회복하는 이 장면에 그의 믿음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대들 어머니 대지의 행복한 아이들이며, 당신들은 내 말을 메아리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애정 어린 연대로 연결된 동료, 친구, 연인들이여! 자식들을 위해 즐겁게 수고하는 아버지들, 아이들의 살아있는 형상을 바라볼 때면 어머니 되는 고통을 잇는 여인들, 수고도 물레질도 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이들이며! 아, 죽음과 병이 우리의 지상의 집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이웃 사람 안에서 형제를 발견하고 인간의 상속 재산인 드넓은 들판들 가운데서 쉼 동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눈물의 샘이 마르고 입술은 두 번 다시 슬픔을 표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면! 지구여, 하늘의 자비로운 눈 아래 이렇게 잠들어 있는 당신을 악이 방문하거나 당신의 불운한 아

이들을 무덤으로 품어갈 수 있겠습니까? 악마들이 듣고 기뻐하지 않도록, 숨죽여 말하지 맙시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의 거처는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전능하여 죽음의 화살촉을 무디게 하고 병상에 위안을 주며 괴로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동료 인간을 돕기 위해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사람 한 명 한 명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꺼져 가는 불꽃같고 내 마음은 힘이 다한 파도처럼 약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게 남아 있는 모든 지성과 힘을 한 가지 사업을 위해 바치며, 내 힘으로 가능한 한 동료 인간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임무를 지려고 합니다!”

“And all ye happy nurslings of mother-earth, do ye not echo my words? Ye who are linked by the affectionate ties of nature, companions, friends, lovers! fathers, who toil with joy for their offspring; women, who while gazing on the living forms of their children, forget the pains of maternity; children, who neither toil nor spin, but love and are loved! Oh, that death and sickness were banished from our earthly home! that hatred, tyranny, and fear could no longer make their lair in the human heart! that each man might find a brother in his fellow, and a nest of repose amid the wide plains of his inheritance! that the source of tears were dry, and that lips might no longer form expressions of sorrow. Sleeping thus under the beneficent eye of heaven, can evil visit thee, O Earth, or grief cradle to their graves thy luckless children? Whisper it not, let the demons hear and rejoice! The choice is with us; let us will it, and our habitation becomes a paradise. For the will of man is omnipotent, blunting the arrows of death, soothing the bed of disease, and wiping away the tears of agony. And what is each human being worth, if he do not put forth his strength to aid his fellow-creatures? My soul is a fading spark, my nature frail as a spent wave; but I dedicate all of intellect and strength that remains to me, to that one work, and take upon me the task, as far as I am able, of bestowing blessings on my fellow-men!” (76)

에이드리언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연적인 애정 어린 연대”로 서로 묶여 있는, 즉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얽혀 있는 운명 공동체로 설계된 존재들이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인간의 공통된 조건이고 본성이다. 인간의 이런 공통된 본성 때문에 에이드리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메

아리”치며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에게 있어 이런 믿음은 인류 전체에 적용될 뿐 아니라 세계 전반의 원리로 확대된다. 자연 환경 역시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소통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 대지”이다. 자연도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적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목소리에 반응할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에이드리언은 인간과 세계의 본래 모습에 대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상에 파라다이스적 이상 사회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보편적 감응 능력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낯선 타인도 소통이 가능한 존재일 뿐 아니라 잠재적 가족이고 형제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상속 재산”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이드리언의 이상 사회는 인간의 힘으로 미래에 실현될 유토피아이면서 동시에 신에게서 받아 최초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으나 잃어버리고 만 파라다이스이기도 하다. 에이드리언은 인류가 지금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보편적 본성을 다시 자각하고 회복하기만 한다면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상 사회를 가까이 가져오는 데에 삶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게 된다. 또 에이드리언은 사랑으로 상부상조하는 운명 공동체인 가족 관계를 이상적인 사회관계의 모델로 삼는다. 에이드리언의 이상 사회는 지구가 집처럼 되고 인류가 한 가족처럼 되는 사회이다.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자각함으로써(혹은 그 존재를 믿음으로써)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에이드리언의 믿음은 서술자 라이오넬과 그의 우정이 성립되는 장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라이오넬의 아버지는 영국의 전왕이었던 에이드리언의 아버지의 총신이였다. 그러나 에이드리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많은 빚을 지고 도망쳐 종적을 감추게 된다. 라이오넬의 아버지는 산골에 잠적한 뒤 자신을 돌봐주었던 산골 여자와 결혼하여 라이오넬과 퍼디타 남매를 낳는다. 아버지는 죽기 전 왕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부탁하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오넬은 어릴 적부터 영국의 전왕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죽고 라이오넬과 여동생 퍼디타는 마을 사람들의 마지못한 자선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된다. 십여 년이 지난 뒤 영국의 전왕의 아들인 에이드리언이 근처의 저택으로 와서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오넬은 그가 아끼는

공원의 짐승들을 밀렵하는 것으로 복수를 대신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비원들에게 잡혀 결국 에이드리언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라이오넬은 의외의 경험을 한다. 라이오넬과의 첫 만남에서 에이드리언은 그들이 본래 친구였다는, “친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born to be friends to each other) 믿음을 바탕으로 분노한 라이오넬에게 선의를 베푼다.⁶ 에이드리언의 이런 행동은 “선의를 달콤한 영향력”(the influence of sweet benignity)이 되어 두 인간 사이의 불신과 경계를 무너뜨린다. 에이드리언의 선의는 라이오넬에게 영향을 미쳐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응력, 즉 타인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본성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라이오넬의 내면에 에이드리언이 제공하는 선의와 믿음에 대해 “적절한 말들”(fitting words)을, “대답”(reply; 26)을 돌려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은 파라다이스적인 완벽한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두 사람의 우정의 성격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에이드리언이 라이오넬과 여동생의 장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 제안했을 때 라이오넬이 보이는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라이오넬은 “이 관대한 친구의 제의”(the offers of this generous friend; 36)에 감사하며 앞으로 자신의 “삶과 지식과 힘을 모두 바쳐”(devote life, knowledge, and power; 37)하여 그에게 보답하고자 말겠다고 마음먹는다. 즉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관계는 조건 없는 선물 같은 관대함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답을 하는 관계이다. 서로 간의 경계가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한 이상 그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고립된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에이드리언의 믿음대로 인간의 감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에이드리언의 이상 사회에 대한 믿음이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인 것처럼, 라이오넬도 “환생하여”(transmigrated; 32)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이 되기 시작”(began to be human; 29)했다고 느끼게 된다.

에이드리언이 라이오넬과 맺는 우정은 그들의 적대 관계는 “모든 지난 일들의 확실한 결과”(the certain consequence of all that had gone before; 21)로

6 에이드리언은 그간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은 라이오넬의 아버지의 소식을 최근야 듣고 수소문 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한다.

써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관계에 의해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던 라이오넬의 믿음을 뒤집는다. 그러므로 에이드리언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선 세습되는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전통 사회이다. 그가 청산하는 라이오넬과의 적대 관계는 이제 왕정이 폐지된 영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세습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하다. 그는 여전히 왕정 부활을 꿈꾸는 어머니 백작부인(**the Countess of Windsor**)과는 달리 왕정 폐지에 동의하는 공화주의자(**republican**)로 그려진다. 그러나 에이드리언이 라이오넬과의 우정을 통해 변화시키는 사회는 전통 사회일 뿐 아니라 근대적 이기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기도 하다.⁷ 이 두 체제는 사회 구성단위(개인이든 가족 혹은 가문이든) 간의 해소될 수 없는 닫힌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으며 에이드리언의 이상 사회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개인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모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고아이기 때문에 더욱 배척을 받아야 했던 라이오넬 남매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에이드리언은 세상은 오직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위대함이 선함과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greatness . . . was no necessary associate of goodness; 19) 믿었던 가난한 고아 라이오넬의 세상을 뒤집게 된다. 그는 실제로 어린 시절 계속 도둑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하여 사유 재산을 훼손하려고 했던 라이오넬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용서해준다.

인간의 감응력은 이런 모범적인 예에서 볼 수 있듯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사회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감응력은 한편으로 거꾸로 자신이 변화되고 침해 받을 수 있는 두려운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도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하고 이 믿음에 근거를 둔 베품이 보답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 있다. 라이오넬의 아버지는 에이드리언이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이라고 보는 능력의 과다 때문에 보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몰락한 인물이다. 라이오넬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심 없음”(disinterestedness)과 “헌신적인 우정”(devoted friendship)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이드리언은 그를 존경한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7 다트는 인간 본성의 선함과 유토피아적 가능성에 대한 루소와 고드윈의 믿음 역시 전통 사회에 대한 반발이면서 동시에 새로 태어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고 한다(31).

틀어진 뒤 실종된 그의 소재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의 우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 이 덕목 때문에 라이오넬의 아버지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낭비되고 소모된 끝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된다. 이 파산은 “아낌없는 낭비”(prodigality) 때문에 일어난 금전적인 파산이지만 관대함을 관대함으로 돌려주지 않을 사람들에게 대해 “잘못 베풀어진 사랑”(ill-bestowed loves; 30)으로 인한 정신적 파산이기도 하다. 라이오넬은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보답 받지 못했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라이오넬은 아버지가 진 금전적인 빚에 대해서는 모두 받을 몫을 요구하는 반면 그가 뿌리고 다닌 “즐거움을 갚으려는”(to repay pleasure; 12)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라이오넬의 여동생 퍼디타의 특징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퍼디타가 남편 레이몬드와 한동안 이상적인 행복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지만 레이몬드의 외도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녀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라이오넬은 이 정신적 파멸의 경위를 설명한다.

그녀[퍼디타]는 (이런 주장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행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조직과 풍부한 상상력은 그녀가 기쁜 감정에 특별히 민감하도록 만들었다. 레이몬드에게서 사랑에 광채를 더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마음의 흘러넘치는 따뜻함은 사랑의 식물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장대하게 자라나게 함으로써, 그녀의 영혼 전체를 행복의 수용에 적합하도록 조율해 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의 직물 전체가 근거를 두었던 감정이 공유를 통해 평범한 것이 되고, 관심과 고상한 행동들의 끝없는 연속이 이 전환에 의해 특 끊어졌을 때 행복은 사랑의 우주를 빼앗긴 그녀로부터 떠나야 했고 정반대의 것으로 교환되어야 했다. 동일한 성격의 특징이 그녀의 슬픔을 처절한 괴로움으로 만들었다. 상상력은 슬픔을 확대시켰고 감수성 때문에 그녀는 계속 갱신되는 슬픔의 감정에 영원히 열려 있어야 했다. 사랑은 심장을 찌르는 고통에 독을 더했다. ... 마치 산 속의 두 시내가 내려오면서 합쳐져 속삭이고 반짝이며 별 같은 꽃들 옆 빛나는 조약돌들 위를 흘러가듯, 레이몬드와 퍼디타의 마음과 영혼 자체가 섞여들었다. 그러나 한쪽이 본래의 물질을 버리거나 물질이 장애물에 의해 막힌다면 다른 쪽은 물이 줄어든 변화된 강기슭을 흐르게 될 것이다.

She [Perdita] possessed that (though such an assertion may appear a

paradox) which belongs to few, a capacity of happiness. Her delicate organization and creative imagination rendered her peculiarly susceptible of pleasurable emotion. The overflowing warmth of her heart, by making love a plant of deep root and stately growth, had attuned her whole soul to the reception of happiness, when she found in Raymond all that could adorn love and satisfy her imagination. But if the sentiment on which the fabric of her existence was founded, became common place through participation, the endless succession of attentions and graceful action snapt by transfer, his universe of love wrested from her, happiness must depart, and then be exchanged for its opposite. The same peculiarities of character rendered her sorrows agonies; her fancy magnified them, her sensibility made her for ever open to their renewed impression; love envenomed the heart-piercing sting. . . . The very heart and soul of Raymond and Perdita had mingled, even as two mountain brooks that join in their descent, and murmuring and sparkling flow over shining pebbles, beside starry flowers; but let one desert its primal course, or be dammed up by choaking obstruction, and the other shrinks in its altered banks. (129-30)

퍼디타는 환경의 자극에 “섬세하게” 반응하며 “마음의 흘러넘치는 따뜻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라이오넬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잠재력”이라고 설명한다. 퍼디타와 레이몬드 부부의 완벽하게 행복한 관계에서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마음과 영혼 자체가 섞여들었다”는 묘사에서 볼 수 있듯 이런 능력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오넬이 설명하듯 바로 이 특성이 사랑이 실패했을 때 퍼디타를 끔찍한 절망으로 몰아넣게 된다. 환경이나 타인과의 경계를 긋지 못하고 “영원히 열려 있게” 되는 특성은 위험한 취약성이기도 하다.⁸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감응 능력이 정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라이오넬이 자신의 여동생 퍼디타와 에이드리언의 (쌍둥이처럼 비슷

8 에이드리언의 여동생 아이드리스와 정략 결혼하여 왕가의 제 1후계자로서의 에이드리언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레이몬드가 에이드리언의 다른 라이벌들과는 달리 결국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이상주의적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던 것도, 그에게는 “언제나 자기 이익이라는 명백한 목표에 딱 맞춰 행동할 수는 없는”(could not always square his conduct to the obvious line of self-interest; 43), 외부의 영향력에 반응하고 열정에 휘둘리는 이런 취약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여동생 아이드리스를 대조시키며 각각의 성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아이드리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완벽한 선함과 솔직함이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솔직함이 있었고 눈에는 순수함이 있었으며 미소에는 천국 같은 선의가 있었다. ... 대조를 통해 묘사하는 것이 아마 가장 쉬울 것이다. 나는 내 여동생의 완벽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드리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페디타는 사랑을 할 때에도 내 성적이고 소심했다. 아이드리스는 솔직하고 터놓는 성격이었다. 한쪽이 실망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고독 속으로 움츠러든다면 다른 한쪽은 아무도 그녀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활짝 갠 낮을 걸을 수 있었다. 워즈워스는 사랑하는 여성을 두 아름다운 자연물에 비교했다. 그러나 그의 시구는 언제나 내게 유사성보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반쯤 시야에서 감추어진
이끼 낀 돌 곁의 제비꽃,
별 하나만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 때의
별처럼 아름다운.

공기에 자신을 맡기는 것에도 몸을 떠는, 시선으로부터 움츠러들지만 그 탁월함 때문에 눈에 띄게 되는 사랑스런 페디타는 그런 제비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외로운 샛길에서 찾아내준 사람들의 수고에 무수한 감사로 보답했다. 아이드리스는 향기로운 저녁의 어둑어둑한 화관 가운데 유일한 광휘처럼 걸린 별이었다. 발밑의 세상을 계몽하고 기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녀는 천국을 닮은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은 모든 것들과의 사이에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 때문에 모든 더럽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The first thing that struck you on beholding that [Idris's] charming countenance was its perfect goodness and frankness; candour sat upon her brow, simplicity in her eyes, heavenly benignity in her smile. . . . It is easiest perhaps to describe by contrast. I have detailed the perfections of my sister; and yet she was utterly unlike Idris. Perdita, even where she loved, was reserved and timid; Idris was frank and confiding. The one recoiled to solitude, that she might there entrench herself from disappointment and injury; the other walked forth in open day, believing that none would harm her. Wordsworth has compared a beloved female to two fair objects in nature; but his lines always appeared to me rather a contrast than a similitude:

A violet by a mossy stone
Half hidden from the eye,
Fair as a star when only one
Is shining in the sky.

Such a violet was sweet Perdita, trembling to entrust herself to the very air, cowering from observation, yet betrayed by her excellences; and repaying with a thousand graces the labour of those who sought her in her lonely bye-path. Idris was as the star, set in single splendour in the dim anadem of balmy evening; ready to enlighten and delight the subject world, shielded herself from every taint by her unimagined distance from all that was not like herself akin to heaven. (51-52)

아이드리스의 “선의와 솔직함”은 인간 본성의 선의와 솔직함을 불러일으킨다. 주변을 “계몽하고 기쁨을 주는” 아이드리스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의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을 깨운다. 하지만 아이드리스의 능력이 별처럼 주변에 선의와 기쁨을 뿌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게 되는 것과는 달리, 퍼디타의 민감한 반응 능력은 레이몬드와의 사랑이 틀어졌을 때에도, 레이몬드와 만나기 전에도 오히려 주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특성이었다. 환경의 영향력에 “자신을 맡기는” 데 대한 퍼디타의 극도의 두려움은 인간들 간의 소외와 적대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라이오넬과 같이 보냈던 불행한 어린 시절에 퍼디타는 이 예민한 취약성 때문에 “차갑고 불쾌한”(cold and repulsive; 15) 태도를 취하는 아이였다. 어린 시절의 라이오넬의 경우에도 “인간의 공감에 대한 갈망”(desire of human sympathy; 14) 때문에 도둑질과 밀렵을 하는 무리를 조직하게 된다. 또한 에이드리언이 자신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데 분노하여 그가 “자신[나]을 느끼도록”(feels me; 24) 하기 위해 에이드리언의 사유지에서 밀렵을 하기로 결심하는 등 그의 잠재적 공감 능력 역시 오히려 사회와의 적대와 소외를 심화시키게 된다.

물론 라이오넬과 퍼디타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인간적 감응 능력은 에이드리언과 아이드리스 같은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아이드리스는 라이오넬과 퍼디타처럼 냉랭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도 이런 감응 능력이 잠들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도 자신[그녀]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영향력에 대한 취약성이 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는 사실은 그 영향력의 잠재적 위험성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에이드리언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자신의 타인에 대한 믿음과 열려 있는 태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소모와 절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즉 믿음과 너그러움이 보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에이드리언은 연인 에바드니의 존재에 의존하여 이런 위기에 대처하려고 한다.

모든 자연스런 매력들을 부여받았으며 지성의 고매한 힘을 지닌, (사고의 두려움을 모르는 독립심을 결함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결함의 그림자로 얼룩지지 않은 에이드리언의 솔직하고 의심을 모르는 마음은 마치 희생을 위한 제물처럼 에바드니에 대한 사랑에 바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보물들을, 탁월함을 향한 포부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들을 그녀에게 맡겼다. 에이드리언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의 계획과 이론들은 개인적이거나 타산적인 동기들에 의해 변하기는커녕, 내면에서 힘이 자라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됨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어려움으로 가득 찬 길임을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확신하게 되면서 에바드니를 향한 그의 사랑은 더욱 뿌리 깊은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보상은 동료 인간들의 찬사나 감사에서는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계획의 성공에서는 더욱 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자신의 마음의 승인, 그리고 모든 수고를 덜어주고 모든 희생을 보상해줄 그녀의 사랑과 공감에서 찾아야만 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The frank and unsuspecting mind of Adrian, gifted as it was by every natural grace, endowed with transcendant powers of intellect, unblemished by the shadow of defect (unless his dreadless independence of thought was to be construed into one), was devoted, even as a victim to sacrifice, to his love for Evadne. He entrusted to her keeping the treasures of his soul, his aspirations after excellence, and his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mankind. As manhood dawned upon him, his schemes and theories, far from being changed by personal and prudential motives, acquired new strength from the powers he felt arise within him; and his love for Evadne became deep-rooted, as he each day became more certain that the path he pursued was full of difficulty, and that he must seek his reward, not in the applause or gratitude of his fellow creatures, hardly in the success of his plans, but in the approbation of his own heart, and in her love and sympathy, which was to lighten every toil and recompence every sacrifice. (43)

에이드리언은 자신의 이상주의가 쉽게 사회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며 전 인류

적 이상 사회의 실현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두려운 예감을 갖게 된다. 이때 그는 이상적인 사회관계가 소규모로 미리 실현되고 있는 특별한 ‘선택된 공동체’를 정신적 지지대로 삼는 방법에 착안하게 된다. 에이드리언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랑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희생”이 될지 모르지만 에바드니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그의 사랑은 완벽한 응답을 받을 것이며 희생과 헌신은 “보상”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특별한 관계는 미래에 전 인류적 이상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주는 동시에 그가 파라다이스적인 삶을 미리 누리고 그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에이드리언은 라이오넬의 아버지처럼 정신적으로 소모당하거나 파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 근간이 되는 에바드니와의 완벽한 관계가 에이드리언의 이상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에바드니의 도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에바드니의 거절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관계의 상호적 완벽성이 사실 에이드리언이 정의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사실 에이드리언은 에바드니가 자신의 계획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셈이다. 완벽한 관계의 성격을 정의하는 에이드리언의 요구에 에바드니가 일방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할 때 성립하는 이 선택된 공동체의 이상의 내부적인 문제는, 이 공동체를 모델로 만들어낼 예정인 이상적인 사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에이드리언은 에바드니의 거절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병을 얻어 은둔하게 되며 이후 전염병이 닥쳐올 때까지 사회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있게 된다. 당장 에이드리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은 레이몬드와 퍼디타 부부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완벽한 선택된 공동체의 존재에 의지하여 파라다이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의 문제는 이들의 실패를 통해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레이몬드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퍼디타가 자신들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 회상하는 다음 장면에서 선택된 공동체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내 삶의 꽃 피는 시절은 가버렸습니다.’ 만물을 덮는 이 밤에는 아침이 없습니다. 이미 진 사랑의 태양은 다시 뜨지 않을 거예요. 그 시절에 나머지 세상은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전부,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한 적도 그들의 존재를 느껴본 적도 없어요. 또 당신[레이몬드]을 그들 중의 하나로 보지도 않았습시다. 그들로부터 격리되어 내 마음 속에 놓여진 당신은

내 애정들의 유일한 주인, 내 희망의 유일한 목표, 나 자신의 더 나은 반쪽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나요? 태양이 비추는 이들 중에 그 빛을 더 순수하고 강렬한 축복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나요? 아니에요, 평범한 배신이 나를 이렇게 한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온전함의 분열이었어요. 당신은 내게 있어 당신이 입고 있던 선택된 사람의 망토를 아무 생각 없이 벗어 던지고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앞에 놓인 이 이상화된, 그러나 인간의 것인 얼굴에 담겨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면 나는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잠든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The bloom has vanished from my life’—there is no morning to this all investing night; no rising to the set-sun of love. In those days the rest of the world was nothing to me: all other men—I never considered nor felt what they were; nor did I look on you [Raymond] as one of them. Separated from them; exalted in my heart; sole possessor of my affections; single object of my hopes, the best half of myself. Ah, Raymond, were we not happy? Did the sun shine on any, who could enjoy its light with purer and more intense bliss? It was not—it is not a common infidelity at which I repine. It is the disunion of an whole which may not have parts; it is the carelessness with which you have shaken off the mantle of election with which to me you were invested, and have become one among the many. . . . I have gazed on you as you slept, melted even to tears, as the idea filled my mind, that all I possessed lay cradled in those idolized, but mortal lineaments before me.” (142)

선택된 공동체는 내적으로도 이 이상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상화된” 완벽한 남성인 레이몬드에 대한 피디타의 일방적인 복종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선택된 공동체 내의 완벽한 관계는 “나머지 세상을 그녀[나]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듦으로써 피디타가 행복을 얻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준다. 나머지 세상은 특별한 선택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는 구분되는 “일반적인” 인간일 뿐이다. 즉 선택된 공동체의 자기 완결적 관계는 이 공동체가 외부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남겨두면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애버린다. 즉 파라다이스적 감응력을 일방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파라다이스적 가능성이 두려운 취약성이기도 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자기

완결적 폐쇄성에 의존하는 것은 원래 이상 사회 실현 계획의 근거가 되었던 인간 본성의 보편적 감응력에 대한 믿음과 배치되므로 선택된 공동체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이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해결하는 셈이다.

이런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완벽한 관계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이 영국의 완벽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선택된 공동체의 자기 완결성을 바탕으로 이상 사회적 영향력을 퍼뜨리는 계획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왕이 없는 영국의 새 지도자인 호국경으로 선출된 퍼디타의 남편 레이몬드 또한 영국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계획에 열중하게 된다.

그 동안 런던에서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갔다. 새 선거는 끝났고 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레이몬드는 무수한 도움이 될 만한 계획들에 매달려 있었다. 운하와 수도관, 다리들, 장대한 건물들과 다양한 공공 건축물들이 시공되었다. 그는 영국을 비옥하고 장대한 하나의 장으로 만들 예정인 프로젝트 기획자들과 프로젝트들에 계속 둘러싸여 있었다. 가난은 폐지되고 인간은 아라비안나이트의 후세인 왕자나 알리 왕자, 아흐메드 왕자 같은 인물들과 거의 같은 정도로 수월하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인간의 신체가 곤장 천사들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병은 추방되며 노동은 가장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이었다. ... 악한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높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기 때문이었다. 레이몬드의 선의가 그들을 고무시킬 것이었고, 일단 한 번 흠이 없는 규칙에 따라 조직된다면 사회의 구조는 두 번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Meanwhile all went on well in London. The new elections were finished; parliament met, and Raymond was occupied in a thousand beneficial schemes. Canals, aqueducts, bridges, stately buildings, and various edifices for public utility, were entered upon; he was continually surrounded by projectors and projects, which were to render England one scene of fertility and magnificence; the state of poverty was to be abolished; men were to be transported from place to place almost with the same facility as the Princes Houssain, Ali, and Ahmed, in the Arabian Nights. The physical state of man would soon not yield to the beatitude of angels; disease was to be banished; labour lightened of its heaviest burden. . . . An evil direction still survived; and men were not happy, not because they could not, but because they would not rouse

themselves to vanquish self-raised obstacles. Raymond was to inspire them with his beneficial will, and the mechanism of society, once systematised according to faultless rules, would never again swerve into disorder. (106)

레이몬드는 영국을 영원히 작동할 “흠이 없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사회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런 계획은 정부의 프로젝트와 과학 기술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레이몬드의 “선의”에 감응을 받아 인간이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각할 때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의 레이몬드는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상이 당장이라도 완벽한 이상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이드리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레이몬드와 퍼디타의 계획은 선택된 공동체가 외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된 공동체가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퍼뜨리고 확장하는 형태가 된다. 이럴 때 인간 보편적 감응력이라는 명목은 특정한 가치를 보편적으로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레이몬드와 퍼디타의 완벽한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 관계는 일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감응 능력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레이몬드와 퍼디타의 이상 사회 실현 계획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 자체가 레이몬드의 일방향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부적 문제가 먼저 폭발하면서 파탄에 이른다. 퍼디타는 오빠 라이오넬에게 이야기한다.

“행복했던 날들에 나는 종종 감사에 가득한 마음과 기쁨에 득의양양한 기분으로 레이몬드가 날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에 대해 나 자신에게 되풀이해 이야기했어. 나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에 의해 높여진,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친구도 없는 산골 소녀였어. 내가 소유한 삶의 호사들은 전부 그로부터 온 것들이었어. 그는 내게 위대한 이름과 고귀한 지위를 주었고 나에게 대한 세상의 존경은 그의 영광으로부터 반사된 것들이었어. 이 모든 사실들과 그의 꺼지지 않는 사랑은 생명을 준 창조주를 대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내가 그에 대해 갖도록 해주었어. 나는 그에게 오직 사랑만을 주었어. 나는 그에게 헌신했어.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그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꾸짖었어. 성급한 성격을 경계하고 타는 듯한 참을성 없는 성격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생각들을 훈련했어. 내 노력의 결실이 그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자 사신을 가르쳐 가능한 최대의 완벽함에 도달하려고 했어. 나는 이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모든 수고와 헌신, 희생,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을만한 사람이었어. ... 달리 하고 싶었다고 해도 달리 할 수도 없었을 거야. 우리가 두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나의 더 나은 영혼이었고 다른 영혼은 그의 영원한 노예였으니까. 그는 나에게 정절이라는, 단 한 가지 보상을 빚지고 있었어. 그건 내가 번거야. 난 그걸 받을만 했어. 그 사람은 내가 귀족들과 부자들과 인연이 없는 산골 사람이라고 해서 빈 이름과 지위로 내게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In days of happiness I have often repeated to myself, with a grateful heart and exulting spirit, all that Raymond sacrificed for me. I was a poor, uneducated, unbefriended, mountain girl, raised from nothingness by him. All that I possessed of the luxuries of life came from him. He gave me an illustrious name and noble station; the world's respect reflected from his own glory: all this joined to his own undying love, inspired me with sensations towards him, akin to those with which we regard the Giver of life. I gave him love only. I devoted myself to him: imperfect creature that I was, I took myself to task, that I might become worthy of him. I watched over my hasty temper, subdued my burning impatience of character, schooled my self-engrossing thoughts, educating myself to the best perfection I might attain, that the fruit of my exertions might be his happiness. I took no merit to myself for this. He deserved it all—all labour, all devotion, all sacrifice . . . I could not do otherwise, even if I had wished; for if we are said to have two souls, he was my better soul, to which the other was a perpetual slave. One only return did he owe me, even fidelity. I earned that; I deserved it. Because I was mountain bred, unallied to the noble and wealthy, shall he think to repay me by an empty name and station?" (144-45)

이처럼 둘의 관계에 대한 퍼디타의 회상은 선택된 공동체 자체가 인간 보편적 감응 능력의 일방향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즉 레이몬드와 퍼디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퍼디타는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인간적인 잠재력을 자각하게 해주고 파라다이스적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준 레이몬드에게 자발적으로 완전히 복종하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퍼디타가 레이몬드에게 보답해야 할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빛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나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이면서 스승이기도 하므로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부장인 것처럼 보였던 레이몬드의 잘못과 불완전성이 드러났을 때 이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게 된다.⁹ 이 부분에서 퍼디타는 두 사람이 맺은 파라다이스적인 관계가 비록 레이몬드가 퍼디타를 계몽함으로써 성립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상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서로 무한히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퍼디타가 레이몬드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레이몬드 또한 퍼디타에게 “빛지고 있는” 것이 있다. 퍼디타는 이런 주장을 통해 레이몬드의 불완전성이 드러난 시점에도 그녀에게 여전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의 일방향성을 변화시키려는 퍼디타의 시도는 실패하게 된다. 레이몬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 레이몬드는 처음에는 퍼디타의 용서를 구하지만 “그의 모든 소망과 노력들”(all his wishes and endeavours; 147)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결국은 오히려 분노하게 된다. 레이몬드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노력들 뿐 아니라 여태까지 호국경으로서 해왔던 모든 일들까지 퍼디타를 위해 했던 일로 규정하면서 그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에 감사로 보답하지 않는 퍼디타를 비판한다 (153). 레이몬드는 결국 다음과 같은 방식의 관계 회복을 요구한다.

“그녀[퍼디타]가 현실 위에 덮은 베일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녀는 모르더

9 레이몬드는 에바드니와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퍼디타와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깨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에바드니는 에이드리언과 헤어진 뒤 귀국했지만 외국의 힘을 빌려 고국 그리스를 독립시키려던 과정에서 매국노로 몰려 런던에서 빈민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우연히 에바드니의 처지를 알게 된 레이몬드는 처음에는 영국을 파라다이스로 바꾼다는 호국경으로서의 의무 수행의 일환으로 자선을 베풀려고 한다. 하지만 에바드니는 자선과 진정한 우정을 구분하며 전자를 거절하고 후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에바드니와 레이몬드의 진정한 우정 역시 에이드리언의 선택된 완벽한 공동체의 공식을 따르는, “바깥 세상과 자신들 사이에 벽”(a wall between them and the world; 116-17)을 세우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우정의 배타적 특별성은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사랑의 배타적 특별성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된다. 에바드니와의 사랑 혹은 우정이 퍼디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는 이와 같은 경위는 내부의 파라다이스적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에 사랑을 퍼뜨린다는 공식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를 보여준다.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관계가 바깥에 퍼뜨리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사랑과는 구별되는 자선이다. 레이몬드가 에바드니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이 불려오는 파국에서 볼 수 있듯 내부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사랑을 바깥 세상에 퍼뜨림으로써 이 차별성이 파괴될 경우 그들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게 된다.

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이 거짓된 덮개를 찢으려고 하지는 말고 조금씩 벗겨 내도록 해요. 그녀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거울을 주어요. 이 필수적이지만 어려운 학문에 정통하게 될 때쯤이면 그녀는 지금의 자신의 실수에 대해 놀라며 마땅히 내 것들인 자신의 용서, 친절함,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서둘러 내게로 올 것입니다.”

“I know, though she [Perdita] does not, how false the veil is which she has spread over the reality—do not endeavour to rend this deceptive covering, but by degrees withdraw it. Present her with a mirror, in which she may know herself; and, when she is an adept in that necessary but difficult science, she will wonder at her present mistake, and hasten to restore to me, what is by right mine, her forgiveness, her kind thoughts, her love.” (154)

레이몬드는 자신이 퍼디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퍼디타의 거부는 아직 덜 교육된 그녀의 무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퍼디타가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과 감사의 의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이상적인 인물의 일방적인 가르침을 통해 성립되는 사랑의 관계가 사랑과 희생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레이몬드가 완벽한 연인으로서의 이상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자신도 더 이상 완벽한 복종을 할 수 없다는 퍼디타의 반발은 무시된다.

실제로도 관계의 회복은 퍼디타가 레이몬드의 요구에 완전히 응할 때 가능하게 된다. 레이몬드는 위와 같은 요구를 남기고 호국경 직을 버리고 그리스로 떠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퍼디타는 뉘우치고 그리스 군사 영웅이 된 그를 찾아가 그가 바라는 모습대로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재통합된 레이몬드와 퍼디타의 관계는 이상화된 가부장의 일방향적인 영향력을 토대로 유지되는 이상 사회 모델의 위험한 면을 보여주게 된다.

그녀[퍼디타]의 삶의 목표는 그[레이몬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에도 그랬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지난날의 그녀는 생각이나 심려 없이 자

10 그 자신의 사랑의 요구를 거절한 에바드니에 대해 에이드리언이 취하는 태도는 용서와 이해이므로 표면적으로는 레이몬드와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이드리언의 용서는 “불쌍한, 실수를 저지른 소녀”(poor, mistaken girl; 46)에 대한 용서와 동정이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에바드니의 어리석음에 대한 동정이므로 에이드리언도 근본적으로는 레이몬드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셈이다.

신의 행복을 통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의 소망은 그녀의 소망과 같았으므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면 그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욕망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기 위해 그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걱정마저도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접어두기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사랑, 영광을 얻으려는 갈망, 그리고 그 자신에게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주었던 야만적인 정부에 대한 증오가 그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친절에 보답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이름에 따라 붙게 된 찬란한 명예들을 그대로 살려 두고 싶어 했으며, 모든 다른 국가들이 문명을 진보시키는 동안 고대의 야만주의의 기념비처럼 그대로 남아 있던 힘을 유럽으로부터 박멸하기를 원했다.

The object of her [Perdita's] life was to do him [Raymond] pleasure: it had been so before, but with a difference. In past times, without thought or foresight she had made him happy, being so herself, and in any question of choice, consulted her own wishes, as being one with his. Now she sedulously put herself out of the question, sacrificing even her anxiety for his health and welfare to her resolve not to oppose any of his desires. Love of the Greek people, appetite for glory, and hatred of the barbarian government under which he had suffered even to the approach of death, stimulated him. He wished to repay the kindness of the Athenians, to keep alive the splendid associations connected with his name, and to eradicate from Europe a power which, while every other nation advanced in civilization, stood still, a monument of antique barbarism. (175)

이 부분은 퍼디타와 레이몬드 의 이상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치할 수 없을 때 퍼디타에게 일방적으로 “그녀 자신을 접어두기를” 강요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한히 선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상주의는 퍼디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특히 레이몬드가 완벽한 이상적인 가부장이 아님이 드러난 시점에서 이 관계가 퍼디타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파라다이스적 요구가 가부장의 권력을 이상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또한 레이몬드가 그리스 인들과 맺는 관계는 신성 불가침한 가부장을 축으로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을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준다. 레이몬드는 퍼디타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의 호국경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로 떠나 그리스의 영웅이 된다. 레이몬드는 그리스 인들과 이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크게 돕게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레이몬드는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정리했으며 그들을 위해 위협과 감금과 고난을 감수했다. 그들의 감사는 그를 깊이 감동시켰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민족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결합시키기로 마음속으로 맹세하였다.

We are said to love much those whom we greatly benefit. Raymond had fought and conquered for the Athenians; he had suffered, on their account, peril, imprisonment, and hardship; their gratitude affected him deeply, and he inly vowed to unite his fate for ever to that of a people so enthusiastically devoted to him. (174)

레이몬드의 희생에 응답하는 그리스인들의 감사와 헌신은 그들을 운명 공동체로 만든다. 처음에 퍼디타와 맺었던 것과 같은 이상적인 관계를 국가 차원에서 맺음으로써 존경 받는 국가 지도자가 되는 레이몬드는, 당장은 소규모의 선택된 공동체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는 에이드리언의 계획을 정말로 실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과 마치 개인적인 사랑과 감사의 관계에 의해 맺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레이몬드는 에이드리언이 지적하듯 사실 그리스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희생을 “무시”(overlooked)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에이드리언은 레이몬드가 “전쟁의 이상”(the ideal of war; 165)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퍼디타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레이몬드의 이상 사회 비전은 이상화된 영웅적 가부장의 야망을 위해 자발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레이몬드는 그리스인들의 사랑에 “보답”(repay; 174)하고 인간 사회를 개혁하며 인간다운 문명을 확장시키기 위해 야만적인 비 유럽인들을 추방하고 말살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다. 레이몬드는 인간적인 문명의 의미를 자기 중심적, 자의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 관계의 문제에서도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계획은 희생과 배제를 정당화하게 된다.

즉 이때 헌신적 사랑이라는 이상은 레이몬드의 개인적 야망을 위한 명목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위협에 대한 인식은 소설 초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라이오넬이 아직 그들 공동체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의 레이몬드에게 반감을 느끼는 것도 그가 진정한 “우상”(idol)이 받아야 할 사랑과 존경을 “유혹의 기술”(fascinating arts; 39)을 통해 빼앗아가는 가짜라고 느끼기 때문이다.¹¹ 이때의 레이몬드는 실제로 에이드리언이 병으로 은둔하는 틈을 타 에이드리언의 여동생 아이드리스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함으로써 영국의 지배자가 되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백작 부인과 합의한) 이 정략결혼을 통해 영국 전 왕가의 후계자가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왕정을 복고하여 왕이 되기를 꿈꾼다. 소설 초반 이런 갈등들은 사랑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해결된다. 정략결혼과 퍼디타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던 레이몬드는 아이드리스를 그녀의 진짜 연인인 라이오넬에게 양보하고 그 자신 역시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인 퍼디타와 결혼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레이몬드는 사랑의 힘으로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는 에이드리언의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후반 전염병에 맞서 끝까지 인간 사회의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에이드리언의 최대 적인 신의 구원을 빈 명목으로 이용하여 개인적 야망을 이루려는 거짓 예언자(the impostor-prophet)라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 『최후의 인간』에서 진정한 파라다이스적 가치와 야망은 계속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 이 사람의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멸할 때까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일하려는 “자선가”(the philanthropist; 386)인 에이드리언이 계속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은 사랑과 야망의 관계 문제가 결국 마지막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야망이 이렇게 계속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이 공감을 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힘이라는 점에서 에이드리언의 파라다이스적 잠재력과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단,

11 레이몬드가 받는 의혹은 백작부인이 라이오넬과 라이오넬의 아버지에게 품는 의혹이기도 하다. 백작 부인은 라이오넬과 그의 아버지를 같은 부류로 규정하며 그들에게 있어 헌신적인 사랑이나 우정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의미 없는 가식”(unmeaning pretensions; 8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에이드리언의 아버지가 라이오넬의 아버지를 궁정에서 쫓아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딸 아이드리스가 라이오넬과 결혼하는 것 역시 강제력을 써서라도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라이오넬은 레이몬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함으로써 결국 공동체에 편입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야망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인 데 반해 파라다이스적 잠재력 혹은 사랑은 외부의 영향력 앞에 그 자신을 열어놓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린 시절 라이오넬 역시 밀렵 조직의 갱 두목이 됨으로써 인간 공감에의 갈망을 해결하려고 했으며 위에서 살펴보았듯 레이몬드는 왕좌를 손에 넣으려는 야망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인간 야망의 유일하게 양심적인 목적”(the only conscientious aim of human ambition)은 “보편적 공익의 원칙”(the laws of general utility; 150)에의 기여라고 여기는 에이드리언의 이상주의는 파라다이스적인 충동에 야망을 통합하고 편입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영국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본래의 욕망 또한 퍼디타와의 진정한 사랑에 의해 감화되어 영국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호국경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소하는 레이몬드는 이 해결 방식을 채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상 사회 실현 계획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은 배제하면서 일방적으로 타자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될 때 파라다이스적 충동을 야망과 구분할 방법은 사라지며 에이드리언의 이상주의는 야망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인간 문명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군사 정복자가 되는 그리스에서의 레이몬드의 모습에서 이런 변질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몬드는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을 점령함으로써 터키 인들을 유럽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사한다. 레이몬드가 죽은 뒤 라이오넬은 퍼디타에게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며 충고하게 된다. 이 충고는 레이몬드에 대한 퍼디타의 사랑과 감사의 의무가 어느새 이상화된 가부장적 핵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전통을 영원히 지속시키라는 요구로 변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레이몬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생존자들의 성스러운 의무일 거야. 그의 이름을 마치 성역처럼 만들고, 찬사를 통해 모든 적대적인 공격들로부터 보호하며, 사랑과 애도의 꽃을 뿌려 부패를 막는 것.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 이런 것이 그의 친구들의 의무일 거야. 그의 아이의 어머니인 너, 퍼디타에게는 더 중요한 의무가 있어. … 너는 레이몬드를 잃었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는 저기에 여전히 너와 함께 살아있고 네 안에 있어. 그녀[클라라]는 그에게서 나왔고 그의 살의 살이며 그의 뼈의 뼈야. … 이런 유사한 점을 잘 양육하도록 해. 이 애가 자기 기원을 자랑스러워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에게 걸맞은 아이로 키우도록 해.”

"Thus to honour him [Raymond], is the sacred duty of his survivors. To make his name even as an holy spot of ground, enclosing it from all hostile attacks by our praise, shedding on it the blossoms of love and regret, guarding it from decay, and bequeathing it untainted to posterity. Such is the duty of his friends. A dearer one belongs to you, Perdita, mother of his child. . . . You say that you have lost Raymond. O, no!—yet he lives with you and in you there. From him she [Clara] sprung, flesh of his flesh, bone of his bone . . . Be it your care to foster this similarity—be it your care to render her worthy of him, so that, when she glory in her origin, she take not shame for what she is." (204-05)

라이오넬에 따르면 레이몬드가 죽은 뒤에도 레이몬드에 대한 퍼디타의 의무는 끝나지 않으며, 퍼디타는 레이몬드가 죽음으로써 더 신성하게 된 가부장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확산시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오넬은 퍼디타의 앞으로의 삶을 포함한 미래 전반을 이상화된 과거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시간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는 퍼디타가 레이몬드의 자식을 길러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라이오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퍼디타는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레이몬드의 무덤의 일부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210-11). 퍼디타는 라이오넬이 억지로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자 결국 자살하면서 레이몬드의 무덤 곁에 함께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긴다. 라이오넬이 퍼디타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사실 죽은 레이몬드의 이상에 영원히 사로잡히는 순장 같은 삶을 고려했다면, 퍼디타가 자신은 라이오넬의 무덤 곁에 순장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느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선택된 공동체 일원들 간의 사랑은 기존의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전통을 정당화하고 영원히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 이것은 소설에 드러난 부모 자식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때 잘 알 수 있다. 소설 초반에 주인공들이 맺는 사랑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이오넬과 퍼디타 남매의 부모는 부재하며, 아이드리스와 에이드리언 남매의 어머니 백작부인은 자식들이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자신의 야망을 대리 충족시켜주기를 바란다.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맺는 관계는 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라이오넬과 아이드리스의 사랑은 아이드리스가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정략 결혼을 할

위기에 놓였을 때 라이오넬이 그녀에게 “모든 인간의 권리인 선택의 자유”(her freedom of choice,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51)를 찾아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된다. 또 주인공들이 맺는 관계는 불만족스러운 부모와의 관계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이오넬은 에이드리언의 말을 “어머니의 명령”(mother's bidding; 36)처럼 여기며 퍼디타는 에이드리언을 “부모의 권위가 압제가 되는 흔한 일 없이”(without the frequent tyranny of parental authority; 46)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줄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퍼디타의 딸 클라라(Clara)는 죽은 아버지 “레이몬드[그]에게 값할 만한”(worthy of him; 205)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받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최대한 닮은 아버지의 복제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요구는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할 인간 보편적 사랑의 의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에이드리언의 이상 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한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실험의 실패 후 라이오넬은 고향 윈저(Windsor) 성으로 돌아와 다시 평화를 찾게 된다.

나는 국내의 정치적 다툼과 먼 외국에서의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나만의 소중한 집으로, 선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선택된 거처로, 평화와 신성한 공감으로 돌아섰을 때의 황홀한 기쁨을 차마 묘사할 수 없다. 내가 윈저 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감정들은 이렇게 강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에서 두려움과 끔찍한 변화들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스에서 불안과 슬픔의 시기를 보낸 뒤, 나는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함과 덕목의 상징이었던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런 슬픔들은 우리가 사랑스런 숲 속에 은둔하여 평온 속에 삶을 보내는 동안에는, 내게 남겨진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절대로 침입해 들어올 수 없었다. 시간의 경과는 물론 이 장소에 몇몇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은 늘 그렇듯, 우리의 즐거움과 기대들에 죽음의 자취를 새겨 넣었다.

I cannot describe the rapturous delight with which I turned from political brawls at home, and the physical evils of distant countries, to my own dear home, to the selected abode of goodness and love; to peace, and the interchange of every sacred sympathy. Had I never quitted Windsor, these emotions would not have been so intense; but I had in Greece been the prey of fear and deplorable change; in Greece, after a period of anxiety and sorrow, I had seen depart two, whose very

names were the symbol of greatness and virtue. But such miseries could never intrude upon the domestic circle left to me, while, secluded in our beloved forest, we passed our lives in tranquillity. Some small change indeed the progress of years brought here; and time, as it is wont, stamped the traces of mortality on our pleasures and expectations. (225)

여기서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의 관점은 놀랍게도 퍼디타와 레이몬드와 실패를 목격하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라이오넬에게 있어 가정은 여전히 “선함과 사랑으로 가득찬 선택된 거처”이다. 원저 성에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머지않아 실현될 전 인류적 파라다이스의 징조라는 에이드리언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이다(219). 그러나 이런 변하지 않은 확신은 이들이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경험을 자신들의 완벽한 가정과는 무관한, 낯선 외국 그리스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의 하나로 처리해버림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퍼디타와 레이몬드는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의 이상을 공유하는 원저 성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그들의 실패는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꿈꾸는 이상의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죽음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가져온 “몇몇 작은 변화” 중의 하나로 처리된다. 원저 성 공동체를 완벽한 선택된 공동체로 이상화하기 위해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기억은 억압되고 소외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비극은 외국의 낯선 사건이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저 성 공동체의 일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화된 가부장으로서의 레이몬드가 퍼디타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문제점들은 “모두의 가슴 속의 우상”(idol of all hearts; 23)이었던 에이드리언에 대해 라이오넬이 최초로 가졌던 의심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전 왕자였던 에이드리언이 자신이 살던 지방으로 이주해오기로 되었을 때 에이드리언을 찬양하며 마치 우상처럼 환영하는 군중들을 보고 라이오넬은 분노한다. 라이오넬은 군중의 열광에 휩쓸려 들뜬 여동생 퍼디타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이드리언]의 지위는 그의 가치들 중 제일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의 덕목들은 전부 단지 그의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거야. 부유하기 때문에 너그럽다고 불리는 것이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며 시중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는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하라고 해. 온 영국이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라고 해. 우리는 그를 알잖아. 그는 우리의 적이야. 우리의 인색하고 비겁하고 오만한 적이야.”

“His [Adrian's] rank his least merit, do you say? Why, all his virtues are derived from his station only; because he is rich, he is called generous; because he is powerful, brave; because he is well served, he is affable. Let them call him so, let all England believe him to be thus—we know him—he is our enemy—our penurious, dastardly, arrogant enemy.”

(22)

즉 에이드리언을 만나기 전 라이오넬은 관대함을 비롯한 에이드리언의 덕목들이 그를 이상화하고 그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가진다. 이 문제는 에이드리언이 실제로 관대하고 파라다이스적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 지위는 실제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에이드리언을 둘러싼 빛의 성격에 대한 라이오넬의 인식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처음에 라이오넬이 에이드리언을 둘러싼 물질적인 부의 번쩍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의 덕목들도 그 번쩍임과 같이 물질적인 부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드리언과 처음 직접 만나는 장면에서 라이오넬은 에이드리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와 외면을 물들이는 것 같은 빛을 느끼고 놀라게 된다(25-26). 이후 라이오넬은 에이드리언을 둘러싼 물질적 환경의 빛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된다. 라이오넬은 에이드리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그의 내면의 빛의 정당한 부산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결론은 말기의 레이몬드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상화된 덕목이 쉽게 권력을 정당화하는 빈 명목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끔히 해소해주지는 못한다.

퍼디타와 레이몬드의 관계가 보여주었던 문제가 라이오넬이 돌아와 정착한 원저 성 공동체의 문제들로 이어진다는 것은 라이오넬이 만아들 알프레드와 맺는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라이오넬이 알프레드에게 하는 요구는 죽은 레이몬드가 딸 클라라에게 했던 요구이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같은, 가장 경이로운, 이상한 시스템이여! 우리 개인들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그렇게 인간은 남는다니. 달변의 철학적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것이 바로 ‘무상한 부분들로 구성된 영원한 몸’에 운명 지어진 존재 방식이다. 인간 종족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전체를 한꺼번에 주조하는 엄청난 지혜의 섭리로 인해 전체는 동시에 늙은 것도 아니고 중년인 것도 어린 것도 아닌 상태에 있으며, 불변하는 연속성 속에 계속적인 쇠퇴와 몰락, 재생과 진보의 다채로운 음역을 따라 움직인다.’ 사랑하는 알프레드, 나는 기꺼이 너에

게 자리를 양보한다! 다정한 사랑의 소산, 우리 희망의 아이여, 전진하라! 내가 선구자로 나아갔던 그 길을 군인이 되어 전진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내어 주겠다. 어린 시절의 걱정 없는 행복과 젊은 시절의 주름 없는 이마, 경쾌한 걸음걸이들이 너를 꾸밀 수 있도록 나는 이미 그것들을 벗어던졌다. ... 전진하라! 너와 너의 동료들, 너희들은 이 선물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너희가 막 참여하려고 하는 극에서, 무대에 서는 것을, 내게 주어진 대사들을 훌륭하게 읽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준 이들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너의 전진이 방해받지 않는 확실한 것이기를! 인류의 희망의 봄에 태어난 네가, 더 이상 겨울이 이어지지 않을 여름을 불려오기를!

“Strange system! riddle of the Sphynx, most awe-striking! that thus man remains, while we the individuals pass away. Such is, to borrow the words of an eloquent and philosophic writer, ‘the mode of existence decreed to a permanent body composed of transitory parts; wherein, by the disposition of a stupendous wisdom, moulding together the great mysterious incorporation of the human race, the whole, at one time, is never old, or middle-aged, or young, but, in a condition of unchangeable constancy, moves on through the varied tenour of perpetual decay, fall, renovation, and progression.’ Willingly do I give place to thee, dear Alfred! advance, offspring of tender love, child of our hopes; advance a soldier on the road to which I have been the pioneer! I will make way for thee. I have already put off the carelessness of childhood, the unlined brow, and springy gait of early years, that they may adorn thee. . . . Advance! avail thyself of the gift, thou and thy comrades; and in the drama you are about to act, do not disgrace those who taught you to enter on the stage, and to pronounce becomingly the parts assigned to you! May your progress be uninterrupted and secure; born during the spring-tide of the hopes of man, may you lead up the summer to which no winter may succeed! (228)

라이오넬이 그리는 이상적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이 “선물”의 대가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알프레드는 “아버지[내]가 선구자로 나아갔던 길”을 계속 전진하기를, 즉 아버지의 이상을 계승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받는다. 이것은 라이오넬의 기원이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확실히 실현될 미래의 예언이기도 하다. 라이오넬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알프레드에게 라이오넬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감사의 의

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이상과 삶의 방식을 계승해 나갈 알프레드의 존재를 통해 라이오넬은 미래는 인간적이면서 아름다운 장소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인용하는 버크의 사상에서처럼 이 인간적인 미래는 인간 역사가 “불변하는 연속성”을 띠므로써 성취될 수 있는 미래이다. 영원한 여름이 지속되는 것 같은 파라다이스적인 미래는 현재의 변화가 아니라 현재의 지속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라이오넬이 스스로 인간적 이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라이오넬의 이상은 퍼디타와 레이몬드들의 실패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숨어 있는 이상이다. 알프레드의 미래가 라이오넬의 과거의 연속이고 복제라면 이 미래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똑같이 복제하고 계승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인간』의 주인공들은 실패와 파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파라다이스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파라다이스는 이런 두려움의 원천인 낯선 타인을 받아들이는 장소여야 함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 그 결과 그들의 희망적인 미래상은 기만적인 비전이 된다. 변질된 이상주의의 모습은 위의 인용된 독백에서 라이오넬이 과거와 미래와 맺는 관계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전염병이 닥쳐오기 직전의 이 장면에서 라이오넬은 과거 경험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에 깔끔한 결말을 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퍼디타와 레이몬드들의 기억이 처리되는 방식에서 볼 수 있듯 라이오넬은 이상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는 경험을 제대로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소설 전반의 두 이야기의 줄기 중 퍼디타와 레이몬드들의 사랑이 실패할 뿐 아니라, 정작 처음에 세상을 바꾸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인물들인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은 제대로 된 시도도 해보기 전에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라이오넬의 성장 이야기도 완결되지 않지만 라이오넬의 이 독백에서 이런 미완결성은 희미해지고 지워진다. 이런 망각을 바탕으로 문제 있는 과거가 계승되어야 할 미래로 이상화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의 실패가 주는 두려움은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더더욱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정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은둔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상이 먼 미래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계승되어 대리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상적인 미래상은 당장의 폐쇄적인 삶의 방식을 정당화시키고 지속시켜줄 뿐인 공허한 구실이 된다.¹²

전염병은 이런 식으로 경험을 정리하고 미래를 정의하는 결말을 깨뜨린다. 전염병은 세상의 모든 구석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그 앞에 안전한 은신처는 없으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예측이나 희망도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은둔 속 먼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전반부 마지막에서 라이오넬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최후의 인간』의 세계에 닥쳐오는 재난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이 현실과 직면하여 자신들의 이상을 직접 다시 시험해보기를 요구하며 결말이 지어진 줄 알았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12 같은 장에서 에이드리언도 “이대로만 가면”(Let this last; 219) 머지않아 저절로 전 지구적 파라다이스가 구현되리라는, 라이오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믿음을 표현한다. 지구의 “극이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진진”(the poles precede slowly, but securely; 220)함으로써 백만 년 후에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될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점성가 메리발(Merrival)의 믿음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이 가진 믿음의 공허함과 무책임함을 패러디해 드러내 보여준다.

2. 세계종말 앞의 파라다이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라이오넬의 기록에서 세계 멸망의 위기는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들을 증명하는 파라다이스적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계기이기도 하다. 멜빌(Peter Melville)은 피난민들을 국가와 생활공간 내로 받아들이고 인류 전체를 구호하려고 하는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노력을,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졌던 레이몬드나 영국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던 라일랜드와 같은 전염병 이전 영국 지도자들의 태도와 구별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파라다이스적 순간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가족의 생존과 이방인에 대한 배려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는 극단적인 순간들에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한계는 타자를 환대하는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의무를 수행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Romantic Hospitality* 170).

그러나 멜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염병과 이전과 이후의 지도자들이 보이는 환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재난 앞에서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외국인들을 돌보아야 할 자신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타자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절대적으로 낯선 외부의 적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외국인을 내부 공동체의 일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은 외국인들의 이방인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함으로써 1장에서 드러난 협소한 인간 개념에 그들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2장에서는 전염병 앞에 주인공들이 만들어내는 파라다이스가 낯설고 위협적인 적과 인간다운 우리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가부장적 전통에 바탕을 둔 특정한 인간 개념을 강요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1장에서 볼 수 있었듯 한편으로는 인간 보편적 감응력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된 공동체의 자기 완결성에 의존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주인공들의 이상주의에는 선택된 공동체 외부의 세상을 불신하고 잠재적으로 적대시하는 관점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퍼디타와 레이몬드를 동행하여 그리스에 갔던 라이오넬이 마침내 원저 성으로 돌아온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다.

도피처를 떠나 사회의 거미줄에 스스로를 얽어매고 속세 사람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던 방랑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악의 미로, 서로를 고

문하는 그 제도! 이 단어의 이런 의미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찰하고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느끼기도 해야 한다. 우리는 그저 극의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직접 연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깊은 슬픔이 우리 마음에 같이 머물렀을 것이며 사기가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교활한 사람에 의해 속았을 것이며 메스꺼운 의심과 거짓된 희망이 우리의 나날을 파란만장하게 어지럽혔을 것이다. ... 이제 세상 앞에 문을 닫고, 그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장면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높은 벽을 세우도록 하자. 이제 서로를 위해, 또 행복을 위해 살기로 하자. 내륙 샘물들의 속삭이는 소리와 나무들의 우아한 흔들림, 땅의 아름다운 의상, 하늘의 숭고한 가장 행렬 근처에서, 우리의 소중한 집에서 평화를 찾도록 하자. 살기 위해 “삶”을 떠나기로 하자.

How unwise had the wanderers been, who had deserted its shelter, entangled themselves in the web of society, and entered on what men of the world call “life,”—that labyrinth of evil, that scheme of mutual torture. To live, according to this sense of the word, we must not only observe and learn, we must also feel; we must not be mere spectators of action, we must act; we must not describe, but be subjects of description. Deep sorrow must have been the inmate of our bosoms; fraud must have lain in wait for us; the artful must have deceived us; sickening doubt and false hope must have chequered our days . . . now, —shut the door on the world, and build high the wall that is to separate me from the troubled scene enacted within its precincts. Let us live for each other and for happiness; let us seek peace in our dear home, near the inland murmur of streams, and the gracious waving of trees, the beautiful vesture of earth, and sublime pageantry of the skies. Let us leave "life," that we may live. (218)

라이오넬은 선택된 공동체의 특별함이 선택된 공동체 외부 세상에 대한 불신과 거리 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라이오넬은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메스꺼운 의심과 거짓된 희망”으로 가득 찬 믿을 수 없는 바깥 세상의 경험과 대비시킨다. 라이오넬은 가정이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소중한 가정과 바깥 세상을 분리할 “높은 벽을 세우기를” 원한다. 원칙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감응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주인공들의 이상주의에 낯선 외부에 대한 이런 불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 환경을 낮설고 적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전염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꿈꾸던 전 인류적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시킬 기회가 된다. 전염병은 주인공들의 이상 사회 실현 계획에 내재되어 있던 안전한 선택된 공동체와 믿을 수 없는 바깥 세상의 구도를 인류 전체 대 자연의 구도로 확장시켜주기 때문이다.

실패를 거듭하던 이상주의자 에이드리언은 전염병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인류의 지도자가 된다. 또 인류를 사랑으로 묶인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듬으로써 모든 갈등을 해소한다는 파라다이스적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에이드리언이 인류애에 호소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의 전쟁을 막는 다음 장면에서 위협적인 외부 자연과의 대결 구도가 에이드리언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볼 수 있다.

“잔인한 야만인들이여,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 동료 인간들이여, 형제여,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용서와 원조와 형제애가 당신들의 회개를 기다립니다.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당신들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당신들 한 명 한 명 모두 우리 군대에서 친구와 손님 맞을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적인 전염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에서 그녀 자신의 살육보다 더 잔인한 우리의 살육에 기뻐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Lay down your arms, barbarous and cruel men! . . . Lay down your arms, fellow men! brethren! Pardon, succour, and brotherly love await your repentance. You are dear to us, because you wear the frail shape of humanity; each one among you will find a friend and host among these forces. Shall man be the enemy of man, while plague, the foe to all, even now is above us, triumphing in our butchery, more cruel than her own?” (302)

영국을 약탈하러 온 아일랜드인들을 에이드리언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류 “모두의 적” 전염병의 존재가 인류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의해 인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를 적에 의해 포위당한 군대나 도시 같은 입장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¹³ 또한 전염병의 비인간적이고 무반

13 에이드리언이 이끌고 가는 인류는 계속 군대에 비유된다. 처음 전염병의 영국 상륙이 알려져 원저 성의 축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라이오넬도 인류 공동체를 “적의 진행을 막을 무적의 방벽을 쌓아야”(pile invincible barriers to the progress of our foe; 246) 할 포위당한 군대에 비유하는 연설을 통해 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혼란을 잠재운다.

응적인 성격은 이에 맞서는 인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과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전염병에 대항하는 구도는 전 인류적 형제애라는 에이드리언의 이상을 실현할 좋은 기회가 된다.

전염병의 영향은 선택된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에 의존하여 파라다이스를 확산시키려는 에이드리언의 계획에 내재되어 있던 다른 문제도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소규모의 선택된 공동체는 그 자기 완결적 폐쇄성 때문에 보다 넓은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원리로 확장되기 어렵다. 그러나 전염병은 인간 사회 또한 외부의 위협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폐쇄적인 선택된 공동체로 만든다. 그러므로 에이드리언은 소규모의 선택된 공동체(대표적으로 가정)의 모델을 인간 사회 단위로 확장하기만 하면 된다. 전염병을 맞은 영국의 새 호국경으로 즉위하면서 에이드리언은 라이오넬에게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끔찍한 재앙과 파멸이 그녀를 무섭게 덮치려는 이 때 첫 번째로 나서서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지킬 수 있어. 이 나라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내가 가진 전부야. 내가 첫 번째를 지킬게. 두 번째 것은 네게 맡길 거야. 만약 내가 살아남았는데 그녀는 잃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녀를 지켜줘.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도 네가 그렇게 할 것을 알아. 만약 다른 동기가 필요하다면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임을 생각해줘. ...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또 그 애들의 아버지이며 그녀의 연인이자 남편, 보호자인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너는 그녀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해. 그러면 이제 원저로 돌아가 줘, 형제여. 모든 의미에서 너는 나에게 형제이니까. 내 부재가 너에게 부가하는 두 겹의 의무를 수행하고 내가 여기의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 사랑스런 은거지로 눈을 돌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줘. 그곳에는 평화가 있다고.”

“But I can be the first to support and guard my country, now that terrific disasters and ruin have laid strong hands upon her. That country and my beloved sister are all I have. I will protect the first—the latter I commit to your charge. If I survive, and she be lost, I were far better dead. Preserve her—for her own sake I know that you will—if you require any other spur, think that, in preserving her, you preserve me. . . . She fears for the children she adores, and for you, the father of these, her lover, husband, protector; and you must be near her to support and encourage her. Return to Windsor then, my brother; for such you are by every tie—fill the double place my absence imposes on

you, and let me, in all my sufferings here, turn my eyes towards that dear seclusion, and say—There is peace.” (255-56)

에이드리언은 영국을 위기에 처한 여성에 비유한다. 그는 자신이 영국을 보호하듯 라이오넬이 자신의 여동생이면서 라이오넬의 아내이기도 한 아이드리스를 보호해주기를 부탁한다. 에이드리언이 만들어내는 구도에서 인간 사회에 대한 봉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연속이며 확장이다. “나라와 사랑하는 여동생”은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동격에 놓인다. 또 여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정의 존재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수호하는 에이드리언의 노력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처음에 이 체제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이드리언의 실험은 선택된 공동체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에 의존하는 인류 보편적 이상 사회에는 내적인 모순이 있으며 결국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¹⁴ 이 충돌은 주인공들이 전염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인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중심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확실히 모든 동료 인간들 중에서 인간의 위대함과 선함의 대표로 설 만한 존재들을 선택할 권리가 내게 있었다면 나는 나와 가장 신성한 유대 관계로 묶인 그들이 아닌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이들이 생존자 중에 있어야 했다. 이것이 나의 임무가 되어야 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생명조차 작은 희생에 불과할 것이다.

And surely, if among all my fellow-creatures I were to select those who might stand forth examples of the greatness and goodness of man, I could choose no other than those allied to me by the most sacred ties. Some from among the family of man must survive, and these should be among the survivors; that should be my task—to accomplish it my own life were a small sacrifice. (261-62)

14 사실 전염병이라는 적이 주는 공포에 의존하여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최초의 믿음과도 모순된다. 그들은 “종교의 아버지”(the parent of religion; 118)가 공포라는, 즉 사회를 집결시키는 믿음은 공유된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반발하며 범인류적, 보편적 사랑을 동력으로 하는 자신들의 파라다이스 비전을 행복의 종교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에이드리언의 범인류적 파라다이스는 비인간적인 외부의 적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세워진 배타적 공동체일 뿐 아니라, 뒤이어 더 살피볼 것처럼 공포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제단에 인간 제물을 희생시키는”(sacrifice human victims at its altars; 119), 즉 특정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믿음이 된다.

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의 확장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게 될 때 인류 개념의 핵심에는 가족이 있게 된다. 라이오넬의 생각에 “인류의 가족”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가족이다. 또 전염병 앞에 전 인류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 “가장 신성한 유대 관계”)는 자신의 가족과의 유대 관계이다.

에이드리언은 혹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살아남은 영국인들을 모두 이끌고 영국을 떠난다. 에이드리언은 라이오넬에게 선원과 해외 파병 군인, 범죄자 출신 등 사회의 국외자들로 구성된 선봉대를 맡긴다(400-01). 이 선봉대를 이끌고 가던 중 라이오넬은 에이드리언이 이끄는(라이오넬의 가족들도 모두 포함된) 본부대가 위협에 처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행진의 일차적 목적은 전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추운 알프스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으므로 라이오넬이 이끄는 선봉대의 구성원들은 전염병의 위협이 있는 지역에 더 지체하거나 뒤쳐진 에이드리언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라이오넬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와 특별한 친구 및 가족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나의 움직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내 가족과 특별한 친구를 뒤에 내버린 채 이 이기적이고 무법적인 인간의 무리를 이끌고 스위스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를 위협하는 죽음이 시시각각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두 번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의 첫 번째 의무는 애정과 의무의 모범을 보이며 호국경을 돕는 것이 아니었던가? 내가 마주친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을 섬세하게 균형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희생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에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 결론은 끈질길 만큼 이기적인 모습을 취한다.

What was I doing, and what was the object of my present movements? Apparently I was to lead this troop of selfish and lawless men towards Switzerland, leaving behind my family and my selected friend, which, subject as they were hourly to the death that threatened to all, I might never see again. Was it not my first duty to assist the Protector, setting an example of attachment and duty? At a crisis, such as the one I had reached, it is very difficult to balance nicely opposing interests, and that towards which our inclinations lead us, obstinately assumes the appearance of selfishness, even when we meditate a sacrifice. (403)

라이오넬은 결국 그 자신의 “일차적인 의무”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인간 보편적인 “애정과 의무”의 이름으로 라이오넬이 이런 선택을 내리는 순간은 라이오넬 자신도 인식하는 대로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상과 이기적인 행동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라이오넬에게 있어 인류애와 인간적인 의무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며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이오넬의 이런 선택은 에이드리언의 인류 보편적 형제애가 보편성의 이름으로 거기서 배제된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인류 보편적 형제애의 이름으로 아일랜드인들의 행복을 받아낸 에이드리언은 이들을 영국인들과 멀리 떨어진 “빈 마을들에 격리”(quartered in deserted village; 303)시키거나 아일랜드로 돌려보내며 더 이상의 국경 침범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를 강화한다. 그렇다면 군인 한 사람의 죽음을 형제의 죽음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에이드리언이 과시했던 형제애는, 그 자신도 비판했던, 그리스 군인 개개인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구실 역할을 했던 레이몬드의 그리스 인들에 대한 사랑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302).

그러므로 인류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구성하려고 했던 에이드리언이 다스리는 사회 역시 궁극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고립된 단위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에이드리언이 인류 단위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은 그가 이끄는 인류가 마지막까지 “자신들[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곧 살아남는 사람”(their beloved family would be the one preserved; 409)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인류의 합동 전선을 형성해 전염병을 막으려는 에이드리언의 노력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류가 가족이라는 배타적인 사랑의 단위들의 집합인 이상 방어선에는 틈이 생기기 때문이다.¹⁵ 전염병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 라이오넬의 둘째 아들 에블

15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을 사회에 생긴 틈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라이오넬은 자신이 내내 전염병이라는 적이 쳐들어오려는 “틈새에 서서”(stood in the gap; 320) 적을 막았다고 하며, 아일랜드인과 영국 군대의 전쟁을 말할 때 에이드리언도 “당신들이 낸 자비 없는 상처의 틈으로 한 명의 영혼도 더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let not one more soul escape through your merciless gashes; 302)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류 가족이라는 개념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남겨두고 가게 되는 것에서 드러난다. 특히 라이오넬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소녀인 줄리엣(Juliet)을 우연히 만나지만 아이드리스의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드리스를 도와준

린(Evelyn), 퍼디타와 레이몬드¹⁶의 딸 클라라, 즉 혈연으로 완벽히 묶인 하나의 가족만 남았을 때 비로소 멈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만 남은 시점에서 이들은 이상하게 완벽한 파라다이스적 행복을 찾게 된다.

저녁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멀리 서쪽의 오렌지색 석양은 우리가 영원히 떠나 온 사랑스런 땅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 대화와 이어지는 생각들은 시간이 날아가듯 지나가게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영원토록 살 수만 있었다면! 우리 네 사람의 심장이 이 넓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순수하게 개인적인 감정만을 고려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막에 각자 혼자 떨어져 삶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고독한 상태로 헤매는 것보다는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함께 남겨지기를 선택할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려고 했다. 진정한 철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기를 가르쳤다.

As the evening star shone out, and the orange sunset, far in the west, marked the position of the dear land we had for ever left, talk, thought enchaining, made the hours fly—O that we had lived thus for ever and for ever! Of what consequence was it to our four hearts, that they alone were the fountains of life in the wide world? As far as mere individual sentiment was concerned, we had rather be left thus united together, than if, each alone in a populous desert of unknown men, we had wandered truly companionless till life's last term. In this manner, we endeavoured to console each other; in this manner, true philosophy taught us to reason. (429)

인류를 한 가족처럼 만듦으로써 이상 사회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노력은 가족을 제외한 인류가 모두 사라져 가족이 곧 인류가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전 지구를 집처럼 만든다는 계획 역시 가족을 제외한 인류가 멸망하여 모든 장소를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됨으로써 실현된다.¹⁶ 이런 식으로 이상 사회가 실현되는 것은 주인공들의 이상주의적 시도의

줄리엣을 돕는 것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간다(388).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던 줄리엣은 전염병을 기화로 절대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기꾼 거짓 예언자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16 인류와 국가 간의 갈등도 영국인을 제외한 인류가 전부 멸망함으로써 영국인이 곧 인류가 됨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오넬이 영국을 떠나면서 인류의 업적들에 작별을 고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주인공들에게 있어 영국적 가치는 곧 인류의 가치이다. 또 영국을 떠난 그들은 프랑스에 “식민지”(a colony; 383)와 유사한 것을 건설하게 된다. 전염병에 의해 “프랑스는 공백”(France was a blank; 374)이나 다름없게 된 상황이므로 프랑스는 별 문제 없

궁극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적인 공동체인 자신의 가족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통해 전 인류적 이상 사회를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인류를 한 가족처럼 만들겠다는 에이드리언의 이상은 사실 자신의 가족을 인류로 만들겠다는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상 사회 비전은 사실상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인류가 전부 사라지기를 요구하게 된다. 라이오넬은 이 특별한 가족과 친구들 없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막”에 내던져지는 것보다 이들과 함께 인류 없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한다.

주인공들이 전염병에 대항하여 수호하려는 인류 개념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그 내적 구조에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이 몰고 오는 두려운 “미래 시간의 그림자”(shadows of future ones [hours]; 258)와 인류의 대결 구도는 기존의 사회 제도와 전통을 보호받아야 할 인간적 가치로 쉽게 이상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인간 사회의 모습은 전 세계적 전염병에 맞닥뜨린 인간의 유일한 “빼앗아갈 수 없는 소유”(an unalienable possession; 273)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다. 즉 전염병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주인공들의 이상주의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상화된 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킨다.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에이드리언이 이끌고 가는 남은 인류의 모습에서 이 문제가 잘 드러난다.

우리의 긴 행렬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중한 관계 혹은 사랑의 연대를 보존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남편들은 보호자다운 보살핌으로 소중한 친지들을 주변에 끌어 모았다. 어머니와 아내들은 그들 곁의 남성의 모습에서 의지할 것을 찾았으며, 다정한 심려의 눈빛으로 주변의 어린 아이들의 무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슬픔에 차 있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모두 각각 누군가는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본성을 특징짓는 그 끈질긴 낙관주의로 모두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곧 살아남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We made a long procession, in which was contained every dear relationship, or tie of love, that existed in human society. Fathers and husbands, with guardian care, gathered their dear relatives around them; wives and mothers looked for support to the manly form beside them, and then with tender anxiety bent their eyes on the infant troop

이 또 다른 영국이 된다.

around. They were sad, but not hopeless. Each thought that someone would be saved; each, with that pertinacious optimism, which to the last characterized our human nature, trusted that their beloved family would be the one preserved. (408-09)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공동체는 인류 단위의 가족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 단위의 집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에이드리언의 지휘 아래 보존되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소중한 관계 혹은 사랑의 연대”의 모습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를 취한다.

라이오넬이 전염병의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 방식과 이상적인 대처 방식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다음 부분에서도 가부장제가 인간적인 가치로 이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도의 교양 있는 일들에 헌신하고 번영하던 부유한 젊은 가족들이, 수가 줄어들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자, 고난으로 이기적이고 비굴하게 변한 채 불 가까이 모여 앉았다. ...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이제 동등했거나,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왔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각종 집안일들]에 기민함과 경험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이다. 반면 무지와 서투름과 편안한 삶의 습관들 때문에 이런 일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되게 느껴졌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지적인 발전에 열중하여, 단순한 동물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저리나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떤 변화 앞에서도 선의와 애정은 스스로를 발휘하고 표현할 장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변화가 고상하고 동시에 영웅적인 헌신과 자기희생을 이끌어 내었다. 각종 친족 관계와 우정의 의무가 고대에 그랬던 것처럼 충실하게 또 기꺼이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모습은 인류를 사랑하는 이들이 가히 즐길만한 광경이었다.

Families late devoted to exalting and refined pursuits, rich, blooming, and young, with diminished numbers and care-fraught hearts, huddled over a fire, grown selfish and grovelling through suffering. . . . Poor and rich were now equal, or rather the poor were the superior, since they entered on such tasks with alacrity and experience; while ignorance, inaptitude, and habits of repose, rendered them fatiguing to the luxurious, galling to the proud, disgusting to all whose minds, bent

on intellectual improvement, held it their dearest privilege to be exempt from attending to mere animal wants. But in every change goodness and affection can find field for exertion and display. Among some these changes produced a devotion and sacrifice of self at once graceful and heroic. It was a sight for the lovers of the human race to enjoy; to behold, as in ancient times, the patriarchal modes in which the variety of kindred and friendship fulfilled their dutiful and kindly offices. (309)

라이오넬은 전염병의 위기 앞에 “단순한 동물적 욕구”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잘못된 대응 방식을 먼저 보여준다. 이에 대비되는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는 대응 방식은 인간적인 “선 의와 애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 멸망의 위기를 오히려 파라다이스적인 행복을 찾을 기회로 바꾸어주는 이런 선 의와 애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가부장제적인 전통은 상실될 위기에 처한 인간의 미덕으로 이상화되고 정당화된다.

에이드리언 역시 전통의 수호자가 된다.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에이드리언이 그리는 인간의 본래 잠재력이 발휘되는 파라다이스는 기존의 제도와 전통들을 개혁함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인류의 지도자가 된 에이드리언은 “존속하고 있는 인류의 제도들을 마치 신성한 것인 양”(human institutions thus surviving as it were divine ones; 304)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염병을 맞아 영국을 다스릴 새 호국경으로 선출된 뒤 라이오넬에게 하는 에이드리언의 고백에서도 그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직무야.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어. 무정부적이 된 영국을 다스리고 위협에서 구하고 헌신하기 위해. 내 조상들의 피가 내 몸 속에서 고함을 치면서 이 나라 사람들 중 첫 번째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네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자존심 강한 여왕이었던 나의 어머니가 일찍이 내 안에 명예욕을 주입해두었다고 해둘게. 그 모든 것 때문에라도, 내 육신의 약함과 나의 특이한 의견이 그런 계획을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오래 전에 이미 나의 혈족의 잃어버린 상속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게 더 좋다면, 내 어머니가 교육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어.”

“This is my post: I was born for this—to rule England in anarchy, to save her in danger—to devote myself for her. The blood of my

forefathers cries aloud in my veins, and bids me be first among my countrymen. Or, if this mode of speech offend you, let me say, that my mother, the proud queen, instilled early into me a love of distinction, and all that, if the weakness of my physical nature and my peculiar opinions had not prevented such a design, might have made me long since struggle for the lost inheritance of my race. But now my mother, or, if you will, my mother's lessons, awaken within me.” (255)

젊은 시절의 에이드리언은 혈통에 의해 권력이 세습되는 왕정 또한 이상 사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 중의 하나로 여기고 그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그는 집안과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 어떤 식으로도 영국의 지배권을 되찾으려던 어머니 백작부인과 대립하게 된다. 그는 사회의 “보편적 공익”(general utility; 150)에 기여하는 것이 권력이나 야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여기며, 사회를 위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공화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마침내 호국경으로 선출된 이 자리에서 에이드리언은 자신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며 어머니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어야 할 호국경의 직책을 “나의 혈족의 잃어버린 상속 재산”으로 정의한다. 선거 전의 연설에서도 그는 자신이 선출되어야 하는 근거로 인류를 위한 자신의 봉사와 “수고”(toil) 뿐 아니라 “자신의 [그의] 조상들의 권리”(the rights of his ancestors; 254) 또한 언급한다.¹⁷

또 에이드리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여성을 수호하고 다스리는 것에 비유한다. 뒤이어지는, 그가 호국경으로서의 결의를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가부장제적인 의무가 곧 보편적인 사랑의 의무와 동일시되면서 이상화된다. 선택된 공동체 내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바깥 세계로 사랑을 퍼뜨린다는 그의 이상 사회 실현 공식은 가정 내의 여성의 “연인이자 남편, 보호자”(lover, husband, protector; 255)가 되어 바깥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 즉 가부장적인 남성의 일이 된다.

17 또한 자기 자신을 호국경으로 추천하는 연설에서 에이드리언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를 자발적으로 양보한 이상 영국 국민은 모두 에이드리언의 집안에 대해 감사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버지인 전왕이 명목상으로나마 국민들을 위해 왕위를 양보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그 아들인 에이드리언이 감사의 당연한 대가로 다시 지도자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과 감사의 의무라는 명목은 폐지된 왕가를 계승하는 인물이 호국경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개혁하려고 했던 구태를 다시 부활시키게 된다.

사랑과 감사의 의무가 남성의 의무가 되며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실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전염병 이후 운명이 갈리는 에이드리언과 아이드리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마치 쌍둥이처럼 묘사되던 두 남매 중 에이드리언은 전염병을 계기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만 아이드리스는 원저 성 공동체의 일원 중 가장 먼저 무력함을 실감하고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를 원동력으로 인류에 봉사함으로써 전염병의 절망에 대항하는 에이드리언의 공식을 여성 아이드리스는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드리언의 호국경 즉위를 지켜보고 집으로 돌아온 라이오넬은 그 자신은 에이드리언처럼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하지만 아이드리스의 봉사는 금지하게 된다.

라이오넬은 에이드리언이 보여준 모범처럼, 마음의 보석 상자 같은 “사랑하는 집”(my loved home; 275)으로부터 인류를 위해 봉사할 힘을 얻는다. 하지만 가정의 “안전과 보호받는 휴식”(the safety and sheltered repose)의 유지를 위해 아이드리스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인류를 위해 봉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이오넬에게 위안을 주는 가정의 “울타리 친 공간”(the inclosure)이 그녀에게는 “끊임없는 걱정”(ceaseless anxiety)으로부터 잠시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감옥이 된다. 가정이 라이오넬에게 위안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이상 고통을 털어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라이오넬의 가정은 아이드리스의 “고통과 눈물”(anguish and tears; 276)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가부장적 요구의 문제는 완벽한 여성으로 그려지는 클라라에게서도 볼 수 있다. 절망 때문에 결국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드리스와는 달리 클라라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불평 없이 수행한다. 라이오넬은 클라라를 전염병 앞에 모범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한다. 클라라는 “그들[우리]의 욕망”(our desires; 310)에 모두 완벽히 부응하고 봉사한다. 라이오넬이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키우고자 했던 클라라는 실제로 “그녀가 우상화하는 아버지의 추억”(the remembrance of her father whom she idolized; 384)을 늘 생각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된다.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의무감은 양아버지들인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형태를 취한다. 라이오넬 역시 그녀를 딸처럼 생각한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드리스의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어머니의 자리가 비게 되는 라이오넬의 가정에서 클라라는 “최고의 다정한 어머니로서의 역

할”(the part of the tenderest mother; 417)을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든 여성이 사라진 세상에서 클라라는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의 “세상의 작은 여왕”(the little queen of the world; 429)이 되어 잠재적 연인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그러므로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 에블린, 클라라가 이루는 지상 마지막 가족은 이상적인 핵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클라라가 딸과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 의존하는 기묘한 형태의 가족이다.¹⁸ 인류가 점점 죽어가는 상황은 그녀에게 서로 모순되는 너무 많은 임무들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여성은 문자 그대로 “모든 여성적이고 여성다운 덕목”(all those feminine and maidenly virtues; 451)들을 한 몸에 구현하는, 그러나 몸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겉으로 어색하게 드러나 보이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요구에 부응하며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클라라가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절할 때 이 마지막 남은 가족은 붕괴된다. 클라라의 거절은 백작부인이 죽어가면서 클라라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내게 친절한 간호사였던 너를 이제 네 삼촌의 보살핌에 맡긴다. 내 안의 보다 나은 부분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너에게 남길 것이다. 귀여운 아이야, 네가 나에게 했던 역할을 에이드리언에게 해주렴. 너의 기운 찬 말들로 그의 슬픔에 활기를 주고 진지하고 영감에 가득 찬 대화로 그의 고뇌를 달래주렴. 그가 죽어갈 때는 네가 나를 간호했던 것처럼 그를 간호해주어라.” 클라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 “이건 정말로 잔인해요! 그들이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보호자께서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도 그를 간호할 수 없어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I commit you [Clara], my kind nurse, to your uncle's [Adrian's] care; to yours I entrust the dearest relic of my better self. Be to Adrian,

18 이 4인 가족의 문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왜곡은 그들 삶의 “위안이자 기쁨”(a comforter and delight)으로서 빗처럼 파라다이스적 영향력을 발산하는 원천이 이제 이상적인 가부장인 에이드리언이나 라이오넬이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에이블린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실패를 확인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가정 밖에는 더 이상 인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에이블린의 “순진무구한 무지”(innocent ignorance; 433)에 기대어 그들의 마지막 파라다이스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이상 사회가 인간 본성에 대한 앞을 바탕을 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공동체 너머의 현실에 대한 폐쇄적인 무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sweet one, what you have been to me—enliven his sadness with your sprightly sallies; sooth his anguish by your sober and inspired converse, when he is dying; nurse him as you have done me.” Clara burst into tears. . . . “This is indeed cruel—how could I live, if they [her friends] were gone? If it were possible for my beloved protector to die before me, I could not nurse him; I could only die too.” (415-16)

백작부인은 딸 아이드리스의 죽음을 계기로 아들 에이드리언과 화해하여 그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백작부인은 클라라가 에이드리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에이드리언을 기쁘게 해주고 돌봐주며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의 요구를 비롯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에 부응했고 죽은 가족들의 역할을 대신해왔던 클라라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돌보고 결국은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마지막 의무에는 반발하게 된다. “자신[나]의 사랑하는 보호자”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된다면 자신도 그를 다 돌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클라라의 말은, 자신이 에이드리언이나 라이오넬에게 완벽한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면 그들도 자신에게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하며 그들이 먼저 죽는 것은 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클라라는 자신이 헌신과 희생을 해온 만큼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도 그녀에게 지고 있는 상호적인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네 명의 가족만이 남고 모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에블린의 죽음은 가장 나이 어린 클라라가 최후의 생존자 역할을 수행해야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클라라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즉 클라라는 라이오넬이 처음 영국을 떠날 때 그녀에게 했던, 아버지 레이몬드의 무덤으로 데려가주겠다고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곧바로 그리스로 출항하지만 이 준비 없는 항해는 에이드리언과 클라라의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이 죽음은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자살했던 클라라의 어머니 퍼디타의 죽음을 연상시키지만, 퍼디타의 죽음은 가부장적인 이상이 그녀에게 사실상 순장되기를 요구한 결과인 반면 클라라는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의 순장을 요구하며 그 결과 마지막 전통적 가족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퍼디타의 죽음을 뒤집는다. 태풍으로 배가 가라앉게 된 상황에서 에이드리언은 해안에 무사히 닿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클라라는 이제 마지막 생존자가 되리라

는 공포가 사라졌으며 “하나의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게”(one death will clasp us undivided; 442) 되리라는 사실이 오히려 기쁘다고 대답한다. 결국 마지막 생존자의 역할은 이 재난에서 혼자 겨우 살아난 라이오넬이 맡게 된다.

인류 마지막 파라다이스가 멸망하게 되는 경위는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정의하는 인간다운 사랑의 의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명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자신이 기존에 정의했던 의미에서의 파라다이스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혼자 남은 라이오넬이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3. 불확실성의 미학: 낯선 미래의 파라다이스적 가능성

전염병의 위협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과정은 주인공들이 외부의 영향력에 열려 있는 감응 능력의 함의와 이 감응 능력에 토대를 두는 파라다이스의 정의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차원을 넘어 인간과 만물의 관계, 세계의 섭리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생각하게 해준다.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은 전 지구가 인류의 집처럼 변화하는 파라다이스를 꿈꾸었다. 전염병은 인간만을 병들게 하고 동식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휩쓸고 간 뒤의 세상은 이들의 파라다이스의 자기중심성을 패러디하는 것 같은, 인간만을 망각하고 소외시키는 조화로운 지상낙원의 모습이다. 이런 디스토피아적 파라다이스에서 인류의 최후의 생존자인 라이오넬은 미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세계의 섭리를 이해하려 애쓰게 된다.

피쉬, 와그너-로울러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인류가 멸망한 세계에서의 라이오넬의 경험을 인류 멸망의 절망적인 최종 결과로 다루지만 멜빌은 라이오넬의 생존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는 절망과 희망 모두를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고 한다(“**Problem of Immunity**” 841). 3장은 마지막 생존자로서의 라이오넬이 겪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멜빌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이 희망과 절망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다. 인간을 빼놓고 돌아가는 자연의 파라다이스를 벗어나야만 하는 처지에서 라이오넬은 미래가 낯선 타자와 만나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이 두려움 뿐 아니라 불안 섞인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장에서는 보편적 감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파라다이스라는 주인공들의 이상이 인간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보편적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외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용하지만 정작 외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 이 이상사회의 보편성은 명목상의 보편성이 되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스며들어오는 치명적인 영향력인 전염병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영향력을 막으려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전염병은 중동 지방에서 출발하여 남쪽 나라들을 먼저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라이오넬을 비롯한 영국 사람들은 영국만은 안전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런던에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이오넬은 이 믿음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전염병이 런던에 와 있었다! 이것을 한참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동쪽의 끝없는 대륙들의 폐허와 서구 세계의 황폐화를 슬퍼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섬과 나머지 지구 사이에 있는 작은 해협이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채로 보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칼레에서 도버까지는 대단한 도약이 필요 없는 거리이다. 눈으로도 쉽게 자매 국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나라들은 원래 하나였다. 그 사이를 흐르는 작은 물길은 지도로 보면 높은 풀들 사이로 난 잘 다져진 작은 길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작은 간격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가 견고한 벽처럼 솟아올라 벽 바깥은 병과 불행, 벽 내부는 악으로부터의 도피처, 파라다이스 정원의 한 구석, 천국의 토양의 작은 조각으로 어떤 악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다니 우리 세대는 정말로 현명했음에 틀림없다!

The plague was in London! Fools that we were not long ago to have foreseen this. We wept over the ruin of the boundless continents of the east, and the desolation of the western world; while we fancied that the little channel between our island and the rest of the earth was to preserve us alive among the dead. It were no mighty leap methinks from Calais to Dover. The eye easily discerns the sister land; they were united once; and the little path that runs between looks in a map but as a trodden footway through high grass. Yet this small interval was to save us: the sea was to rise a wall of adamant—without, disease and misery—within, a shelter from evil, a nook of the garden of paradise—a particle of celestial soil, which no evil could invade—truly we were wise in our generation, to imagine all these things! (248)

영국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특별한 파라다이스라는 믿음은 영국 섬이 “어떤 악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다라는 벽을 통해 바깥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런 “견고한 벽”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적 계획의 최초의 전제였던 보편적 감응 능력이다. 라이오넬은 지구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이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유럽 대륙은 영국 섬의 “자매 국가”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은둔을 택하는 인물들의 비참한 죽음에서 볼 수 있듯 전염

병을 막거나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염병은 주인공들에게 감응 능력은 외부의 위협한 영향력에 대해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들이 잊으려고 하던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보편적 감응 능력에 수반되는 위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사랑의 일방적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를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 감염력인 전염병이다.¹⁹ 처음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라이오넬은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무한한 공간을 채우는 많은 별들 중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이 지구의 거주민인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무한을 이해한다. 눈에 보이는 우리 존재의 구조는 가장 하잘 것 없는 사고에도 종속되어 있다. 나날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를 강요당한다. 작은 찰과상에 의해 파괴된 그, 우리 주변에 작용하고 있는 악의적인 힘의 영향력에 의해 눈앞의 삶으로부터 사라져버린 그는 나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 또한 그와 같은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군주, 원소들의 통치자, 삶과 죽음의 지배자라고 자처한다. 우리는 이런 오만함에 대한 변명으로, 개인이 파괴되더라도

19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보편적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던 주인공들은 진정한 보편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이 공동체의 보편성은 낯선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왔다. 보편적 감응 능력에 의지한다면 외부의 낯선 영향력도 수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염병은, 주인공들이 완벽한 파라다이스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억압해왔던 이런 요구들과 관련이 있다. 전염병은 레이몬드나 인간 문명을 위해 유럽으로부터 터키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지점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발원했으며, 레이몬드와의 관계에서 완벽한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받았던 여성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바드니와 레이몬드의 관계가 피디타에게 발각되었을 때 레이몬드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피디타와는 달리, 에바드니는 이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the right line of conduct; 146)은 완벽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레이몬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녀는 완벽하게 레이몬드를 위해 행동한다. 에바드니는 레이몬드를 더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도움도 요구하지 않고 가난과 고독 속에 잠적하며,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그녀가 자살을 하지 않는 것도 그가 자신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146). 원저 성 공동체의 인물들은 에바드니의 이런 도덕성에 감격한다. 하지만 라이오넬은 레이몬드를 따라갔던 그리스의 전장에서 에바드니를 우연히 다시 만나 이런 희생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게 된다. 레이몬드를 어떻게든 돕기 위해 남장을 하고 그리스 독립 전쟁에도 참전했던 에바드니는 결국 영웅 레이몬드를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병사들 중의 하나로 죽게 된다. 레이몬드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의무를 수행한 결과 도달하게 된 이런 끔찍한 결말 앞에 에바드니는 “사랑의 끝”(the end of love)을 선언한다. 동시에 전염병을 포함하여 재앙이 레이몬드를 집어삼킬 것을 예언한다. 에바드니는 “자신[나의] 죽음으로 [나는] 레이몬드[당신]를 산다”(By my death I purchase thee; 181)고 말하며 레이몬드의 사랑이 자신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채권(bond)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레이몬드에 대한 자신의 희생 역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인류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내세우게 된다.

What are we, the inhabitants of this globe, least among the many that people infinite space? Our minds embrace infinity; the visible mechanism of our being is subject to merest accident. Day by day we are forced to believe this. He whom a scratch has disorganized, he who disappears from apparent life under the influence of the hostile agency at work around us, had the same powers as I—I also am subject to the same laws. In the face of all this we call ourselves lords of the creation, wielders of the elements, masters of life and death, and we allege in excuse of this arrogance, that though the individual is destroyed, man continues for ever. (230)

그들이 처음 친구가 되는 장면에서 라이오넬이 인간 내면의 보편적 공감 능력에 호소하는 에이드리언의 “선의의 달콤한 영향력”(the influence of sweet benignity; 26)을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느꼈듯 전염병의 “악의적인 힘의 영향력” 또한 거부될 수 없다. 전염병은 “가장 하잘 것 없는 사고에도 종속되어 있는”, 인간의 신체의 외부적 영향력에 열려 있는 성격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를 변화시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 마음은 물질 세계의 우연한 사고에 의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동료 인간의 죽음에서 자신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음을 실감하는 라이오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서로 연결된 만물의 운명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위험을 공유해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글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마치 인간을 위해 설계된 것 같은 호의적인 자연 환경이 이상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에이드리언의 흔들렸던 믿음을 되찾는 계기가 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 서로 연결되고 감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세계에 대한 믿음은 에이드리언의 파라다이스적 믿음의 보이지 않는 전제였다. 그가 라이오넬을 변화시켜 친구로 만드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 이런 감응 능력의 존재는 인간이 “마음만 먹는다면” 타인, 즉 인간 사회 뿐 아니라 나아가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를 행복하고 친밀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전염병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 간의 연결성은 자연이 인간에,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기도 하며 이런 영향은 낮설고 파괴적인 것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전염병의 보편적 영향력은 결국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의 벽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완전히 디스토피아적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이 영국에서 이끌고 나온 인류도 천 명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잠잠했던 전염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라이오넬은 절망하게 된다. 그는 세계의 디스토피아적인 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느낀다.

갑자기 또렷하고 명확한 내면적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시간의 말들이] 공허로부터 그 짐을 끌고 나온 순간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과 이런 결말은 시간을 앞으로 싣고 가는 말들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불변하는 필연성의 법칙을 거꾸로 읽으려 하는가? 이 세상의 어머니, 절대자의 심부름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필연성이여! 바쁜 손가락으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건의 매듭을 짜며 앉아 있는 이여! 당신이 하는 일에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이런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 이상 나는 폐허 가운데 앉아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Sudden an internal voice, articulate and clear, seemed to say:—Thus from eternity, it was decreed: the steeds that bear Time onwards had this hour and this fulfilment enchained to them, since the void brought forth its burthen. Would you read backwards the unchangeable laws of Necessity? Mother of the world! Servant of the Omnipotent! eternal, changeless Necessity! who with busy fingers sittest ever weaving the indissoluble chain of events!—I will not murmur at thy acts. If my human mind cannot acknowledge that all that is, is right; yet since what is, must be, I will sit amidst the ruins and smile. (399)

라이오넬이 공유해온 에이드리언의 믿음과는 달리 세상을 묶는 보편성은 사랑과 감사의 사슬이 아니라 “불변하는 필연성의 법칙”이며 “끊을 수 없는 사건의 사슬”인 것처럼 보인다. 즉 세상은 비인간적이며 물리적인 인과적 법칙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장소처럼 보인다. 라이오넬은 인간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법칙의 절대적 지배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이때 라이오넬은 파라다이스적 계획의 실패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개혁의 희망을 갖는 것도 불가능한 완전한 디스토피아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적 계획은 어머니 자연 혹은 “가장 자비로운 힘”(a most benignant power; 75)에 의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설계된 세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사회 제도들을 개혁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라이오넬은 “세상의 어머니”의

본 모습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독재자이며, 인간은 이런 “야만적인 독재(**barbarous tyranny; 426**)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전염병의 전진을 막으려는 주인공들의 노력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점점 인간에게 반응하지 않는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처음에 라이오넬은 선택된 공동체의 존재가 사랑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힘이 된다는 에이드리언의 공식에 따라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를 원동력으로 인류에 봉사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항하려고 한다. 라이오넬의 노력은 전염병의 나쁜 공기를 막아줄 “암브로시아 같은 공기”(an ambrosial atmosphere; 275)를 만들어내는 등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이드리언의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외부 세계가 인간의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인간의 노력이 보답 받는 장소라는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시도에도 반응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전염병의 영향력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를 파괴시키게 된다.

주인공들의 실패는 그 자신이 전염병에서 생존했음을 근거로 희망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보다 나은”(better than a doctor's prescription; 272) 약이라고 주장하는 마사(Martha)의 실패에서 잘 드러난다.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어 마을을 다스리며, 전염병을 기회로 오히려 상부상조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마사의 작은 에이드리언 같은 인물이다. 마사의 희망이 실제로 보답을 받으리라고 믿는다. 마사의 예에서 영감을 받은 라이오넬은 마을마다 그녀 같은 이상적인 지도자를 세워 전염병을 기회로 오히려 “지상에서의 평화와 행복의 치세를 상상했던”(who have imagined a reign of peace and happiness on earth; 271) 이상주의자들이 그렸던 완벽한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전염병은 이런 이상적인 지도자들의 죽음을 가져옴으로써 라이오넬의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뿐 아니라 두 배로 절망을 가져온다. 그들의 죽음은 전염병이 마사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의 사랑과 희망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소통 불가능한 힘일 뿐 아니라, 사랑과 감응력의 원천인 인간의 “마음을 소통 불가능하게 소멸시킬”(reducing to incommunicable annihilation the mind; 272) 수 있는 힘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이오넬 자신도 결국은 인류를 위한 자신의 노력들이 “완전히 무익”(The

utter inutility)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인간의 노력이 세계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으며 “자화자찬의 위로”(the balm of self applause; 308)에 의해서만 보답 받을 수 있는 공회전에 불과하다는 느낌은 그에게 절망감과 피로를 준다. 아이드리스는 가정을 지키려는 자신의 싸움이 그 자신을 소모시키는 공회전에 불과하다고 가장 먼저 느끼게 된다. 원저 성에 가족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새 호국경이 되어 런던으로 떠났던 오빠 에이드리언을 오랜만에 만난 아이드리스는 그에게 비로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녀[아이드리스]는 영원히 되살아나는 굶주림으로 자신의 영혼을 파먹는 끊임 없는 걱정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녀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잠들지 않는 예감의 굶아먹는 고통을 프로메테우스의 심장을 파먹은 독수리에 비유했다. 이런 외적 자극과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견뎌야 하는 끝나지 않는 싸움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기계의 모든 바퀴와 태엽들이 두 배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급하게 스스로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녀는 말했다. ... 무덤이 빨리 그 예정된 먹잇감을 받아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무수한 생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는 어떤 희망도 개선도 불가능했다.

She [Idris] described in vivid terms the ceaseless care that with still renewing hunger ate into her soul; she compared this gnawing of sleepless expectation of evil, to the vulture that fed on the heart of Prometheus; under the influence of this eternal excitement, and of the interminable struggles she endured to combat and conceal it, she felt, she said, as if all the wheels and springs of the animal machine worked at double rate, and were fast consuming themselves. . . . To this state there was no hope, no alleviation, unless the grave should quickly receive its destined prey, and she be permitted to die, before she experienced a thousand living deaths in the loss of those she loved.
(304)

프로메테우스의 노력처럼 아이드리스의 “끝나지 않는 투쟁” 역시 그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 전염병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아무런 보답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희망도 개선도”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 그녀는 스스로를 운명적으로 “예정된 먹잇감”인 것처럼, 즉 고통 받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과 감응할 수 있는 그녀의 민감함은 이것

이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이라는 에이드리언의 믿음과는 달리 고통을 더하게 만들 뿐이다.

에이드리언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믿음의 핵심은 행복이 “선함의 자매”(the **sister of goodness**)이며 따라서 사랑과 희생은 행복에 의해 보답 받으리라는 믿음이었다. 라이오넬은 “자비로운 지성”(benevolent intelligence)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응답하는 이런 세계에 대한 믿음을 “행복으로부터 피어나는 종교”(the religion which springs from happiness; 118-19)라고 부른다. 때문에 위기에 처한 영국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이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런던으로 떠날 때도 에이드리언은 자신이 스스로를 그제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결정을 “덜 비극적인 관점”(a less tragic light; 246)에서 바라보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전염병이 진전되면서 점점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을 가진 인물들은 그 능력 때문에 고통 받고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전염병을 막고 생존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은 가족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며 이런 노력으로 작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행복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특출난 파라다이스적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 인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마사나 에이드리언의 믿음과는 달리 이런 인물들의 노력은 보답을 받지 못한다. 평생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일했던 루시(Lucy)는 영국의 남은 생존자들이 모두 에이드리언을 따라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도 여행을 할 수 없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뒤에 남는다. 루시는 그들만 남게 된 현실을 감추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365). 쥐라(Jura) 산맥에서 에이드리언 일행이 만나게 되는 이름 모를 여자 역시 아버지로 부터 인류 멸망의 현실을 숨겨 왔다. 전염병에 걸려 죽기 직전 마침 에이드리언 일행을 만난 그녀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듣고 곧 뒤따라 죽는다(421-22). 줄리엣은 아들을 위해 전염병에 대한 신성한 면역력을 약속하는 거짓 예언자의 휘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추종자들 사이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예언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몰래 죽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줄리엣의 아들도 죽는다(406-07). 전염병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루시는 “모범적인 피해자”(exemplary sufferer; 350)가 될 수밖에 없으며, 줄리엣 역시 “바로 그 선함

으로 인해 더 쉽게 희생자가 될”(whose very goodness made her a more easy victim; 387) 수밖에 없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에게 절망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함께 영국을 나왔던 모든 사람이 죽고 세상은 비인간적 자연 법칙의 보편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라이오넬은 자살을 고려하게 된다.

사랑 없이, 공감 없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아침 해를 만나고 저녁 어스름에 이르는 그 자꾸 반복되는 여행을 뒤쫓을 수 있겠는가? 왜 나는 계속 살았는가? 왜 시간의 지친 무게를 던져 버리고 나 자신의 손으로 내 번민하는 가슴에 갇힌 퍼덕거리는 죄수를 풀어주지 않았는가? ... 내가 이 빈 대지에서, 계절과 계절의 변화에서 눈 먼 힘의 손길만을 볼 수 있었더라면 나는 무척 기꺼이 머리를 흙에 눕히고 대지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영원히 눈을 감아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그 먹잇감을 거의 움켜잡았을 때 운명은 내게 삶을 베풀어주었다. 운명은 내 목을 조르려는 파도로부터 아슬아슬하게 나를 끌어내었다. 그런 기적들로 그녀는 나를 자기 것으로 획득했다. 나는 그녀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명령에 머리를 숙였다. ... 그러나 내 마음 중의 마음에 들어와 박힌 가시 돋은 창을 빼어내 줄 손 하나 곁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손을 내밀어보았지만 내 손은 그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어떤 것에도 닿지 못했다. 일곱 겹의 외로움의 방벽이 나를 에워싸고 벽을 치고 천장으로 덮고 있었다.

Without love, without sympathy, without communion with any, how could I meet the morning sun, and with it trace its oft repeated journey to the evening shades? Why did I continue to live—why not throw off the weary weight of time, and with my own hand, let out the fluttering prisoner from my agonized breast? . . . Could I have seen in this empty earth, in the seasons and their change, the hand of a blind power only, most willingly would I have placed my head on the sod, and closed my eyes on its loveliness for ever. But fate had administered life to me, when the plague had already seized on its prey—she had dragged me by the hair from out the strangling waves—By such miracles she had bought me for her own; I admitted her authority, and bowed to her decrees. . . . Yet how cease to repine, since there was no hand near to extract the barbed spear that had entered my heart of hearts? I stretched out my hand, and it touched none whose sensations were responsive to mine. I was girded, walled in, vaulted over, by seven-fold

barriers of loneliness. (463-64)

라이오넬은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는 세상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된다. 무한히 반복되며 “계절과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를 소외시키고 돌아가는 자연 법칙의 절대적 보편성은 라이오넬에게 있어 지옥 같은 것이 된다. 어떻게든 전염병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영국을 떠났던 인류의 여행이 전염병의 승리가 분명해짐에 따라 점차 “끝없이 길게 늘어진”(drawn out interminably; 408) 고통스런 반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듯, 자연 속에 혼자 남은 라이오넬의 시간 또한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기계적인 반복이 되며 “피로한 무게”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러나 라이오넬이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당장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먼 힘”과는 구분되는 어떤 미지의 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보편적 사랑과 감사의 사슬로 만물을 연결함으로써 만들어내려고 했던 자신들의 완벽한 파라다이스에 틈이 있으며 낮선 외부 존재가 침입해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전염병을 맞았을 당시의 라이오넬과 친구들에게는 절망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연 법칙의 자기 완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미지의 낮선 힘의 존재가 라이오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²⁰ 라이오넬은 아무도 비켜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걸리면 아무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었던 전염병으로부터 기적으로 회복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이오넬은 예외 없는 절대적인 힘이었던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았던 이 기적을 회상하면서 전염병이 만들어낸 세계의 비인간적 보편성 또한 깨뜨릴 수 있을 미지의 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얻고 그에 희망을 걸게 된다. 즉 그는 세계의 보편적 조화에서 소외된 나머지처럼 보이는 그 자신의 예외적 존재 자체가 바로 기계적 자연 법칙이 진정한 보편적 절대자는 아니라는 증거이며, 언젠가는 이 감옥의 벽에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류가 거의 전멸한 후기에 이르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이드리언이 인류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것 또한 자신의 노력에 응답하도록 설계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미지의 낮선 힘이였다.²¹ 에이드리언은

20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기 위해 그 울타리 밖으로 “죽음과 병이 추방되기를”(that death and sickness were banished; 76) 기원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쫓아내려고 했던 에이드리언에게 있어 쫓겨난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염병의 역습은 절망적인 일이었다.

호국경의 자리에 오른 이래 처음으로 라이오넬에게 속마음을 고백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매달리는 손과 무력한 힘으로 나는 전염병의 전차의 바퀴에 매달리려고 했어. 그러나 전염병은 신의 전차처럼 삶의 대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짓밟고 전진하면서 나를 같이 끌고 갈 뿐이었어. 모두 끝이 나준다면! 그녀의 행진이 목표에 다다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면! … 용서해줘, 버니[라이오넬 버니]. 이런 말이 너를 괴롭히는 것은 알지만 이 이상은 불평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다시 나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야. 아니,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느낌이야. … 때때로 동요의 시간들이 날 찾아왔었지. 그렇지만 여태까지 나는 나 자신보다 나은, 지칠 줄 모르는 영혼이 내 안에 살게 된 것 같은, 아니, 차라리 그 존재가 약한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어. 신성한 방문객은 아마도 그의 영감 없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기 위해 잠시 잠들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신의 의지와 의지력의 힘이여,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찢어버린 인간의 육체의 신전을 아직 경멸하여 버리지 말아주세요, 영원한 잠재력이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 인간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당신의 이 부수어진, 망가져가는 기계 곁에 남아 지지해주세요!”

“I have done my best; with grasping hands and impotent strength, I have hung on the wheel of the chariot of plague; but she drags me along with it, while, like Juggernaut, she proceeds crushing out the being of all who strew the high road of life. Would that it were over—would that her procession achieved, we had all entered the tomb together! . . . Pardon me, Verney [Lionel Verney], I pain you, but I will no longer complain. Now I am myself again, or rather I am better than myself. . . . I have been visited at times by intervals of fluctuation; yet, until now, I have felt as if a superior and indefatigable spirit had taken up its abode within me or rather incorporated itself with my weaker being. The holy visitant has for a time slept, perhaps to show me how powerless I am without its inspiration. Yet, stay for a while, O Power of goodness and strength; disdain not yet this rent shrine of fleshly mortality, O immortal Capability! While one fellow creature remains to

21 길게 늘어진 고통스러운 여행 속 에이드리언이 이끄는 마지막 인류도 미지의 “다른 존재 형식들의 출현”(the revealing of other forms of being; 420)을 기대하게 된다. 쥐라 산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처음 기대하는 것은 그들 자신 같은 다른 생 존재와의 만남이 아니라 이런 예측 불가능한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다.

whom aid can be afforded, stay by and prop your shattered, falling engine!" (397-98)

어떤 인간적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자비한 전염병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만물이 자비로운 지성에 의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설계되었다고는 에이드리언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하지만 그가 무의미해 보이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전염병으로 대변되는 이 무자비한 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지배자는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 에이드리언은 자신을 때때로 방문하여 희망을 주는 미지의 힘이 전염병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 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직한 “영원한 잠재력”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 “신성한 방문객”은 언제 찾아오거나 떠나갈지 알 수 없으며 그 영향력의 한계도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에이드리언이 처음에 가졌던 것 같은 파라다이스적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미지의 힘이 주는 믿음은 과거에 그들이 가질 수 있던 인간의 마음에 반응하고 보답을 주는 세계에 대한 믿음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 설계된 파라다이스 상에는 내적인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 남았던 가족들마저 죽은 뒤 혼자가 되었을 때 라이오넬이 경험하는 인간이 없는 자연의 모습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지구였다. 신록이 무성한 그 광활함에는 아무런 변화도 폐허도 틈새도 생기지 않은 채였다.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광채를 더하지도 지구에 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낮과 밤을 바꾸어가며 하늘을 가로질러 계속 돌고 또 돌아갈 것이다. 나는 왜 저 동물들의 하나가 된 것처럼 나 자신을 잊고, 내가 견디고 있는 이 비참함의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아! 그렇지만 이 얼마나 죽음과 같은 틈새가 그들의 삶과 내 삶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동반자가 있지 않은가? 각자 모두 배우자와 소중한 어린 것들과 집이 있지 않은가? 비록 우리 인간에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자연이 그들을 위해 창조한 공동체는 그들의 눈에도 이 집을 더 소중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동물들]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슬퍼하는 가슴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 무구한 것들, 자연의 사랑받는 선택된 아이들여, 살아가라! 나도 너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신경, 맥박, 뇌, 관절, 살, 그런 것들로 나는 만들어져 있고 너희들 역시 같은 법칙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내게는 이것들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은 행복한 동안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곁합이라

고 부르려고 한다.

Yes, this is the earth; there is no change—no ruin—no rent made in her verdurous expanse; she continues to wheel round and round, with alternate night and day, through the sky, though man is not her adorning or inhabitant. Why could I not forget myself like one of those animals, and no longer suffer the wild tumult of misery that I endure? Yet, ah! what a deadly breach yawns between their state and mine! Have not they companions? Have not they each their mate—their cherished young, their home, which, though unexpressed to us, is, I doubt not, endeared and enriched, even in their eyes, by the society which kind nature has created for them? . . . Ah, no! I will discipline my sorrowing heart to sympathy in your joys; I will be happy, because ye are so. Live on, ye innocents, nature's selected darlings; I am not much unlike to you. Nerves, pulse, brain, joint, and flesh, of such am I composed, and ye are organized by the same laws. I have something beyond this, but I will call it a defect, not an endowment, if it leads me to misery, while ye are happy. (459)

라이오넬은 자연의 법칙의 보편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의 “아무런 변화도 폐허도 틈새도” 없을 것 같은 조화로움을 일종의 파라다이스로 느낀다. 하지만 이 보편성은 인간의 존재를 잊고 인간적인 욕구에는 응답하지 않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보편성이기 때문에 라이오넬에게 있어 이 완벽한 조화는 끔찍한 독재가 된다. 동물들을 위한 파라다이스는 인간에게는 디스토피아적 감옥이다.

라이오넬이 동물들을 “자연의 사랑받는 선택된 아이들”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 라이오넬에게 엄청난 절망을 주는 이 자연의 파라다이스는 세상이 선택된 아이들인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가졌던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의 뒤집어진 거울상이다.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조화에 대한 주인공들의 믿음은 자연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절망과 병으로부터 회복했을 때의 에이드리언의 독백은 서로를 위해 설계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전능한”(omnipotent; 76) 의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끝나게 된다. 전염병의 위력을 처음 실감했을 때의 라이오넬은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이 더 이상 “만물의 주인”(lords of the creation)이 아니고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상속 재산”(inheritance; 230)이 아니게 되었음을 한탄한다.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파라다이스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수한 사회의 모습을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이상화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힘이 된다.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에 기초한 파라다이스가 디스토피아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라이오넬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로마(Rome)에서 하게 되는 경험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라이오넬은 인간을 잇는 것 같은 자연이 주는 소외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 인간 문명의 중심지로서 유일하게 남은 “인간의 빼앗길 수 없는 소유”(an unalienable possession of humanity; 460)인 것 같은 로마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로마에서 라이오넬이 하는 경험은 이상화된 인간 전통 또한 인간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전에 [에이드리언과 만나기 전에] 나는 “늑대가 길러낸 옛날 로마의 창립자처럼 거친 야만인”이었으며 이제 바로 그 로마에서, 그 창립자가 지니고 있던 것과 유사한, 강도나 양치기 같은 자질들이 그 유일한 거주자인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나는 아침은 캄파냐 평원에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면서 보냈고 여러 화랑들에서 긴 시간을 보냈으며 모든 조각상들을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많은 아름다운 마돈나와 황홀한 님프들 앞에서 공상하며 나 자신을 잊었다. 나는 바티칸을 자주 드나들었고, 신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리석 형상들에 둘러싸여 서 있곤 했다. 돌로 된 신상들은 모두 신성한 기쁨과 사랑의 영원한 결실에 사로잡힌 채였다. 그들은 무관심한 자기만족 속에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종종 거친 어조로 그들의 지고의 무관심을 비난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신과 같은 인간 형상이 극히 아름다운 사지와 윤곽들마다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조형은 [그 조각상들에] 색깔과 움직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반쯤은 쓰러린 냉소에서, 반쯤은 자기 기만을 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들의 균형 잡힌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고, 큐피드와 프시케의 입술 사이로 들어가, 불모한 대리석에 입을 맞추었다.

But before that time, I had been “as uncouth a savage, as the wolf-bred founder of old Rome”—and now, in Rome itself, robber and shepherd propensities, similar to those of its founder, were of advantage to its sole inhabitant. I spent the morning riding and shooting in the Campagna—I passed long hours in the various galleries—I gazed at each statue, and lost myself in a reverie before many a fair Madonna or beauteous nymph. I haunted the Vatican, and stood surrounded by marble forms of divine beauty. Each stone deity was possessed by

sacred gladness, and the eternal fruition of love. They looked on me with unsympathizing complacency, and often in wild accents I reproached them for their supreme indifference—for they were human shapes, the human form divine was manifest in each fairest limb and lineament. The perfect moulding brought with it the idea of colour and motion; often, half in bitter mockery, half in self-delusion, I clasped their icy proportions, and, coming between Cupid and his Psyche's lips, pressed the unconceiving marble. (465)

로마는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전염병에 맞서 보존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이상들의 집합소인인 것처럼 보인다. 유적의 도시인 로마에는 인류 문명의 업적과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조각상들은 이상적인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또 인간이 멸망한 뒤에도 남아있는 이 “영원한 로마”(Eternal Rome; 460)의 유적들은 인간적인 전통을 후대로 영원히 계승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주인공들의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로마의 조각상들의 “신과 같은 인간 형상”은 변화할 수 없는 차가운 이상이기도 하다.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 라이오넬에게 대답하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이 조각상들의 “지고의 무관심”들은 자연이나 전염병의 무반응성 만큼이나 그에게 고통을 준다. 마지막 인간 라이오넬은 인간의 소유이며 집이어야 할 이 도시를 낫선 장소로 느끼며 도둑이나 유령처럼 배회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자연과 죽은 인류 문명이라는 디스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 갇힌 것 같은 라이오넬의 문제는 만물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그들 자신의 본래의 전제로 돌아갈 때에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세상이 근본적으로 열려 있는 장소라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폐쇄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칙을 파괴하는 예외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물론 만물의 연결성이 전염병이 타고 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열려 있음은 더 이상 희망적인 미래의 보증 수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소설의 결말에서 라이오넬은 다시 인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가능성을 찾아 유럽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내가 이 광활한 지구의 전체를 방문할 수 있다면 그 드넓은 광활함 속 어딘가에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 나의 불행의 원인이었으나 아마도 이제 그 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바다로 나는 이제 나아가려고 한다. 안녕, 이탈리아! 안녕, 이 세상의 보석인

그대, 여러 달 동안 고독한 자의 은거지가 되어주었던 돌도 없는 로마여! 문명화된 삶이여, 정해진 집과 단조로운 나날의 연속이여, 안녕! 위험이 이제 내 것이 되리라. 나는 그녀를 친구로 환영한다. 죽음이 계속 내 앞길을 가로지를 것이며 나는 은인을 만나듯 그를 만나리라. 고난과 굶은 날씨, 위험한 폭풍우가 나의 굳은 동지들이 될 것이다. 그대 태풍의 영혼들이여, 나를 받아주소! 그대 파괴의 힘들이여, 팔을 크게 벌려 나를 영원히 끌어안아주소! 긴 인내 끝에 보답을 받아 다시 나와 닮은 누군가의 심장 곁에 뛰는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보다 호의적인 힘이 또 다른 결말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But it was still possible, that, could I visit the whole extent of earth, I should find in some part of the wide extent a survivor. . . . To that water—cause of my woes, perhaps now to be their cure, I would betake myself. Farewell, Italy!—farewell, thou ornament of the world, matchless Rome, the retreat of the solitary one during long months!—to civilized life—to the settled home and succession of monotonous days, farewell! Peril will now be mine; and I hail her as a friend—death will perpetually cross my path, and I will meet him as a benefactor; hardship, inclement weather, and dangerous tempests will be my sworn mates. Ye spirits of storm, receive me! ye powers of destruction, open wide your arms, and clasp me for ever! if a kinder power have not decreed another end, so that after long endurance I may reap my reward, and again feel my heart beat near the heart of another like to me. (468)

미지와 의 조우에 희망을 거는 것은 만나게 될 대상이 “파괴적인 힘”일지 “보다 호의적인 힘”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경험에 열려 있는 성격에 미래를 건다면 그에 수반되는 위험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위험[그녀]을 친구로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이드리언의 “신성한 방문객” 역시 그의 마음이 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을 때에만 만날 수 있는 존재이다. 선택된 공동체의 폐쇄성이 주는 확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에이드리언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 파라다이스적 감응력의 열려 있음에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용문에 뒤이어지는 부분에서 라이오넬은 유럽을 떠나 낯선 남쪽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을 꿈꾼다. 레이몽드가 유럽 문명(즉 그들에게 있어서의 인간 문명)을 수호하기 위해 터키 인들을 콘스탄티노플 너머로 쫓아내려고 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유럽 문명 바깥의 낯선 세상은 주인공들에게 있어 비인간적인 위협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전염병이 유럽 문명을 완전히 멸망시킨 시점에서 미지의 남쪽 나라들은 라이오넬이 다시 인간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주는 공간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이 재 정의되면서 라이오넬은 정말로 “자신[나]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것이 “아마도 이제 그 약”이 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²²

시간적으로도 라이오넬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불확실한 미래가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영역임을 깨닫게 된다. 라이오넬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여행을 떠나면서 기록을 마무리 짓는다.

나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도 품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단조로운 현재를 견딜 수 없다. 희망도 기쁨도 나의 킁잡이가 아니다. 나를 이끄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절망과 변화의 강렬한 열망이다. 나는 절망과 드잡이질 하고 공포에 흥분되기를, 아무리 사소하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성취할 어떤 과업을 갖게 되기를 열망한다. 나는 환경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변화하는 걸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무지개에서 좋은 징조를 읽어낼 것이며 구름에서는 위협을,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소중한 어떤 교훈이나 기록을 읽어낼 것이다. 그렇게 빈 지구의 해안을 따라, 태양이 높고 달이 차고 또 기우는 동안, 천사들과 죽은 자들의 영혼과 절대자의 영원히 열린 눈이 최후의 인간 버니를 태운 작은 배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I form no expectation of alteration for the better; but the monotonous present is intolerable to me. Neither hope nor joy are my pilots—restless despair and fierce desire of change lead me on. I long to grapple with danger, to be excited by fear, to have some task, however slight or voluntary, for each day's fulfilment. I shall witness all the variety of appearance, that the elements can assume—I shall read fair augury in the rainbow—menace in the cloud—some lesson or record dear to my

22 라이오넬이 마지막 거처로 로마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생존자가 있다면 자신처럼 자연스럽게 인류 문명의 중심인 로마로 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463).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라이오넬을 절망하게 만들지만 이 부분에서 갑자기 그는 생존자가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라이오넬은 로마를 인류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포함시켜 인류를 재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류 문명의 마지막 근거지처럼 느껴졌던 로마는 “말라리아로 유명한”(noted for Malaria; 468), 인류 최대의 위협인 전염병의 도시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라이오넬은 깨닫게 된다.

heart in everything. Thus around the shores of deserted earth, while the sun is high, and the moon waxes or wanes, angels, the spirits of the dead, and the ever-open eye of the Supreme, will behold the tiny bark, freighted with Verney—the LAST MAN. (470)

에이드리언과 라이오넬은 미래가 파라다이스가 실현될 공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폐쇄된 공동체(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실현되는, 이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적 미래의 성격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에는 낯선 외부의 영향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거부와 공포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런 배타적 공포를 숨긴 주인공들의 파라다이스 비전은 결국 과거의 전통을 이상화시켜 미래를 지배함으로써 변화를 거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없는 자연의 무한히 반복되는 것 같은 시간의 경험(그리고 과거를 불변하게 보존하는 로마의 조각상들 사이에서 느끼게 된 절망)은 라이오넬로 하여금 변화에 열려 있는 미래의 성격에 자신을 걸어보게 만든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지속되는 “단조로운 현재”는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떠나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²³ 이상 사회를 만들려는 충동은 원래 기존의 사회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절망과 변화의 강렬한 열망”에 이끌려 여행을 떠나는 라이오넬은 파

23 라이오넬과 에이드리언이 영국의 남은 생존자들을 이끌고 영국을 떠났을 때도 이와 비슷하게, 고향이나 집이 파라다이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식으로부터 고향이 아닌 장소에서 파라다이스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인류의 마지막 보루이며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 같던 영국의 불가침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라이오넬과 다른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보루가 아니라 무덤이나 감옥인 것처럼 느끼고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넓은 사막”(a wide desert; 322)처럼 느껴졌던 바깥 세상은 바로 그렇게 넓기 때문에 늘 어딘가에 파라다이스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다(326). 그러나 이 여행은 멸망해가는 인류에게 파라다이스를 찾아주지 못하며 처음 계획과는 달리 유럽의 경계를 넘어가지도 못하고, 영국과 똑같이 무덤 같은 로마에서 끝나게 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퍼디타와의 관계가 실패한 뒤 고향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삶을 다시 시작”(other scenes begin life again; 153)하려던 레이몬드 역시 삶을 다시 시작하기는커녕 죽음의 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된다. 그러나 레이몬드가 새로운 장소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그리던 새로운 삶이 영국에서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완벽한 가부장적 영웅의 이상을 재현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에이드리언이 이끄는 인류 역시 다시 발견하게 될 파라다이스를 “인류의 뿌리 뽑힌 나무를 다시 심을”(replant the uprooted tree of humanity; 326) 수 있을 장소로 정의한다. 라이오넬은 “그[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those I best loved; 330)을 짊어지고 영국을 떠나, 새로 발견하게 될 고향에서 다시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라이오넬이 마지막에 떠나는 여행은 미래의 파라다이스가 잃어버린 과거의 반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실패한 다른 여행들과는 구별된다.

라다이스적 충동의 본래 모습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라이오넬은 유적의 도시 로마뿐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남지 않은 유럽의 자연에도 작별을 고한다.

불확실한 미래는 “착각”(the delusion; 467)일지도 모르는 불안한 희망을 줄 뿐 파라다이스적 미래를 약속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파라다이스적 가능성에 접촉하는 방법은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기도 한 미래의 영향력에, 세상의 “모든 변화하는 걸모습”에 자신을 열어놓는 방법뿐이다. 이런 미래는 라이오넬이 갈망하던 “어떤 과업”, 즉 낭비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인간의 잠재력을 시험해볼 기회 또한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바다의 날씨가 라이오넬의 항해에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런 잠재력이 파라다이스를 실현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열린 채로 남겨진다. 마사나 에이드리언과 달리 라이오넬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이나 기대가 보답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여행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 세상의 최종적인 주재자의 정체 역시 “천사들, 죽은 자들의 영혼, 절대자의 영원히 열린 눈” 중 어떤 것일지 불확실한 채로 남는다.

미래에 대한 라이오넬의 희망은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독자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로마에 머물던 라이오넬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한다.

나 또한 책을 쓸 것이라고 나는 외쳤다. 누가 읽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어리석은 과장된 제스처(절망만큼 변덕스럽고 아이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로 나는 썼다.

위대한 죽은 자들에게

헌사.

그림자들이여, 일어나 너희 자신의 몰락을 읽어라!

최후의 인간의

이야기를 보라.

그러나 이 세계는 다시 채워지지 않겠는가? 나로서는 알 수 없고 닿을 수도 없는 어떤 은거지에서, 구원받은 한 쌍의 연인이 낳은 아이들이 떠돌다가 전염병 전 인류의 이 엄청난 유적에 도착하여, 무한한 상상력과 신과 같은 힘으로 이토록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이 존재들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나라로 가버린 경위를 알려고 하지 않겠는가? 나는 글을 써서 이 가장 오래된 도시, ‘세계의 하나 뿐인 기념비’에 이 일들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나는 최후의 인간 버니의 존재의 기념비를 남길 것이다. 처음에 나는 단지 전염병과 죽음과 그리고 이별

에 대해서만 쓰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에 미련을 가지고 머물렀으며, 신성한 열정으로 내 친구들의 덕목을 기록했다. 그들은 내가 이 일을 마치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끝마치며 종이에서 눈을 든다. 다시 그들은 나에게서 떠나간다. 나는 다시 혼자라는 것을 느낀다.

I also will write a book, I cried—for whom to read?—to whom dedicated? And then with silly flourish (what so capricious and childish as despair?) I wrote,

DEDICATION
TO THE ILLUSTRIOUS DEAD.
SHADOWS, ARISE, AND READ YOUR FALL!
BEHOLD THE HISTORY OF THE
LAST MAN.

Yet, will not this world be re-peopled, and the children of a saved pair of lovers, in some to me unknown and unattainable seclusion, wandering to these prodigious relics of the ante-pestilential race, seek to learn how beings so wondrous in their achievements, with imaginations infinite, and powers godlike, had departed from their home to an unknown country? I will write and leave in this most ancient city, this “world’s sole monument,” a record of these things. I will leave a monument of the existence of Verney, the Last Man. At first I thought only to speak of plague, of death, and last, of desertion; but I lingered fondly on my early years, and recorded with sacred zeal the virtues of my companions. They have been with me during the fulfilment of my task. I have brought it to an end—I lift my eyes from my paper—again they are lost to me. Again I feel that I am alone. (466)

처음에 그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기념비인 로마에 더할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다. 이상화된 과거를 추모하는 기념비로서의 글쓰기는 미래를 지배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라이오넬은 실제로 글쓰기를 통해 “밝은 대낮 같은 인류 계몽의 대로”(the bright noon-enlightened highway of mankind)에 참여함으로써 후대 “전 인류의 아버지”(the father of all mankind; 157)처럼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에서의 라이오넬의 경험은 이상화된 과거가 미래를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억압적일 뿐 아니라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조각상과 그림, 책들의 일방적인 독자로 있어야만 할 뿐

어떤 의미 있는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라이오넬에게 큰 고통을 준다. 하지만 라이오넬도 깨닫듯 이 조각상들의 의미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관객”(sole remaining spectator; 462)인 그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염병은 인류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할 후대의 독자를 전멸시키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해 이상화된 과거를 영원히 미래에 전할 수 있다는 라이오넬의 확신을 붕괴시킨다.

“위대한 죽은 자들”에 대해 쓸 뿐 아니라 그들을 독자로 삼아 쓰겠다는 라이오넬의 현사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독자에 대한 상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 역시 과거에 대한 기념과 추모조차 미래의 독자에 대한 희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라이오넬은 미래의 독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인류는 전멸한 시점에서 라이오넬의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오넬이 상상할 수 있는 독자는 그로서는 “알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장소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을 사람들이다. 또 이런 독자는 더 이상 그 반응을 미리 규정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문명의 기록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알 수 없는 독자들이다.²⁴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독자가 자신들의 유적과 기록에서 자신들의 “신과 같은 힘”을 볼 것이지만 동시에 이 유적이 유적으로 남아야만 했던, 자신들이 멸망하거나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찾을 것이라는 라이오넬의 상상은, 과거를 이상화하는 로마의 조각상들과는 달리 자신의 기념비는 실패의 기념비이기도 해야 한다는 자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라이오넬에게 있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미련과 불확실하고 위험하면서 유일하게 희망의 공간이기도 한 미래를 연결해주는 전환점이다. 과거에 대한 기록을 다 끝냈을 때 라이오넬은 사랑하는 잃어버린 친구들 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느끼고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때 라이오넬이 과거와 미래와 맺는 관계는 전염병이 닥쳐오기 전 아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결말을 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가 시간과 맺으려고 했던 관계와 분명히 달라져있다. 이상화된 과거의 복제·연속으로서의 미래를 꿈꾸었던 전염병 전의 라이오넬은 사실상 미래를 거부한 셈이다. 과거가 완결되고 완벽한 것일 때 미래가 가져다주는 미지와는 조우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협적이다. 그러나

24 라이오넬의 기록은 실제로 온전한 책이 아니라 흩어진 나뭇잎들(the leaves; 6), 즉 순서를 알 수 없는 흩어진 책장들 같은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서문에서 라이오넬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 편집자는 자신의 복원(즉 우리가 읽고 있는 형태의 라이오넬의 기록)이 원작자의 뜻을 제대로 살린 복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행동에 의해 또 다시 쓰이고 의미를 부여받아야 하는, 완결되지 않은 실패의 경험임을 받아들일 때 라이오넬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결말을 낼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실패를 인식하는 것은 과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미래를 위한 경험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결론

라이오넬의 기록은 자신이 그렸던 미래의 파라다이스가 진정한 대안 사회가 아니라 문제 많은 과거의 반복이었을 뿐임을 알게 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룬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실이 변화 불가능하며 파라다이스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위협한 환상이라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낯선 것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파라다이스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미래이기도 하다. 기존의 파라다이스 비전도 실현 공식도 폐기된 상태에서 이 미지의 미래에 접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한다.

라이오넬의 미래를(라이오넬이 최후의 인간인지 여부를) 열린 상태로 남겨두는 『최후의 인간』의 결말부에서 또 하나 전과 달리 불분명한 채로 남는 것은 라이오넬이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파라다이스의 모습이다. 더 이상 그 자신의 가정이나 국가의 확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없는 이 파라다이스의 모습은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친구의 심장 소리나 어느 남쪽 해안에 라이오넬의 배가 도착하는 모습에서 암시될 뿐 더 구체적으로 상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상상할 수 없는 낯선 장소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파라다이스를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라이오넬의 아내 아이드리스가 보여주는 이상한 희망에서, 진정한 보편적 파라다이스의 원칙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 전염병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믿었던 영국도 전염병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이 분명해지고 그들의 이상을 미래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아들 알프레드도 죽게 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라이오넬의 아내 아이드리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동안 내가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는 정도는 당신도 쉽게 믿을 수 있겠지요. 나는 온 인류가 이 삶에서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금, 죽은 자들이 어떤 다른 삶 속에 다시 태어났을지에 자문해 보았습니다. 매시간 나는 이런 생각들을 곱씹으며 미래의 미스터리에 대한 이성적인 결론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지금 살면서 뒤집어쓰고 있는 이 그림자를 단순히 벗어 던지고, 지금과 같은 친구들과 지금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여, 지식과 사랑의, 구름 하나 없는 햇빛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면 죽음은 완전히 허수아비 같은 것이겠

지요. 두려움은 속세의 옷과 함께 무덤 속에 버리고, 우리 소망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 하지만 내가 완전히 죽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강한 직감이, 내가 [미래에] 완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라이오넬, 나는 결코, 결코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인간적 본성이 허락하는 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 세상의 지배자’가 우리를 절대 떼어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You [Lionel] may easily believe that during this long progress of the plague, I have thought much on death, and asked myself, now that all mankind is dead to this life, to what other life they may have been borne. Hour after hour, I have dwelt on these thoughts, and strove to form a rational conclusion concerning the mystery of a future state. What a scare-crow, indeed, would death be, if we were merely to cast aside the shadow in which we now walk, and, stepping forth into the unclouded sunshine of knowledge and love, revived with the same companions, the same affections, and reached the fulfilment of our hopes, leaving our fears with our earthly vesture in the grave. Alas! the same strong feeling which makes me sure that I shall not wholly die, makes me refuse to believe that I shall live wholly as I do now. Yet, Lionel, never, never, can I love any but you; through eternity I must desire your society; and, as I am innocent of harm to others, and as relying and confident as my mortal nature permits, I trust that the Ruler of the world will never tear us asunder.” (339-40)

아이드리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만 동시에 미래가 잃어버린 친구와 가족들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만나는, 개인적인 과거의 복제 같은 공간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한다. 미래는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라이오넬에게 있어 파라다이스적 미래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미래의 낯섦이 현재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희망이 되었듯, 아이드리스에게도 “그녀[내]가 [미래에] 완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직감은 곧 지금 맞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리라는 희망을 주는 직감이기도 하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녀가 제시하는 희망의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

들 뿐 아니라 낯선 타인들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즉 열려 있음과 믿음이다. 타인의 존재와 욕망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들의 존재는 미래를 아이드리스와 라이오넬이 “그들[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미래를 낯선 곳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보편적 파라다이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낯섦이다. 아이드리스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인간적 본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낯선 타인에 대한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한다. 결국 유럽의 최후의 인간이 된 라이오넬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지구 어딘가의 낯선 타인의 존재만이 그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파라다이스 실현 계획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제임슨의 유토피아 이론에서도, 유토피아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보편적 이상이 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기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진정한 유토피아는 낯선 장소일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를 실현시키려는 이상주의자들은 기존 사회에 대해 반발하지만 동시에 그 일부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를 넘어설 정말로 낯선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제임슨은 이런 상상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파라다이스적 충동의 힘, 즉 타인의 경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 이상이 “유토피아가 구성되어야 할 방식에 대한 모든 논의”(all the arguments about how Utopia should be constructed; Jameson 217)의 장의 역할을 할 때 도달될 수 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라이오넬과 아이드리스가 이야기하면서 함께 갖게 되는 희망적인 미래의 비전은 낯선 장소로서의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들이 이때 그리는 미래는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가 모두 멸망한 미래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를 대신하여 지구를 차지하게 될, “자신들[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른 영혼들, 다른 마음들, 다른 지적 생명체들”(other spirits, other minds, other perceptive beings, sightless to us; 341)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한다. 그 낯섦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습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참고 문헌

1. 1차 문헌

Shelley, Mary. *Frankenstein*. Ed. Butler, Marilyn. New York: Oxford UP, 2009.

---. *The Last Man*. Ed. Morton D. Paley. New York: Oxford UP, 2008.

Shelley, Percy Bysshe. "Ode to the West Win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8th ed. Vol. 2. Ed. Stephen Greenblatt. New York: W. W. Norton, 2006. 772-79.

2. 2차 문헌

박미경.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에 재현된 공화주의와 전염병의 제국」. 『안과밖: 영미문학연구』 32 (2012): 53-80.

유선무.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 —역사의 끝에 선 환대」. 『영어영문학』 58.1 (2012) 93-115.

Beer, John. "Romantic Apocalypses." Fulford 53-69.

Cantor, Paul A. "The Apocalypse of Empire: Mary Shelley's *The Last Man*." Conger et al. 193-211.

Clemit, Pamela. *The Godwinian Novel*. Oxford: Oxford UP, 1993.

Conger, Syndy M. et al., eds. *Iconoclastic Departures: Mary Shelley after Frankenstein*. Madison, NJ: Fairleigh Dickinson UP, 1997.

Dart, Gregory. *Rousseau, Robespierre and English Romanticism*. Cambridge: Cambridge UP, 1999.

Elliot, Dorice Williams. *The Angel out of the House: Philanthropy and Gender in Nineteenth-Century England*. Charlottesville: Virginia UP, 2002.

Ellis, Kate Ferguson. "Subversive Surfaces: The Limits of Domestic Affection in Mary Shelley's Later Fiction." Fisch et al. 220-34.

Ferguson, Frances. *Wordsworth: Language as Counter-Spirit*. New Haven:

- Yale UP. 1977.
- Fisch, Audrey A. "Plaguing Politics: AIDS, Deconstruction, and *The Last Man*." Fisch et al. 267-86.
- Fisch, Audrey A., et al., eds. *The Other Mary Shelley: Beyond Frankenstein*. New York: Oxford UP, 1993.
- Fulford, Tim. "Millenarianism and the Study of Romanticism." Fulford 1-21.
- , ed. *Romanticism and Millenarianism*. New York: Palgrave, 2002.
- Harrison, Gary. "Ecological Apocalypse: Privation, Alterity, and Catastrophe in the Work of Arthur Young and Thomas Robert Malthus." Fulford 103-17.
- Holmes, Richard. *The Age of Wonder: How the Romantic Generation Discovered the Beauty and Terror of Science*. London: Harper Press, 2008.
- Jameson, Fredric.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New York: Verso, 2005.
- Johnson, Barbara. "The Last Man." Fisch et al. 258-66.
- Keen, Paul. "The 'Ballomania': Science and Spectacle in 1780s England." *Eighteenth-Century Studies* 39.4 (2006): 507-35.
- Kitson, Peter J. "'To Milton's Trump': Coleridge's Unitarian Sublime and the Miltonic Apocalypse." Fulford 37-52
- Racine, Luc. "Paradise, the Golden Age, the Millennium and Utopia: A Note on the Differentiation of Forms of the Ideal Society." *Diogenes* 122 (1983): 119-38.
- Langbauer, Laurie. "Swayed by Contraries: Mary Shelley and the Everyday." Fisch et al. 185-203.
- Lokke, Karl E. "The Last 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y Shelley*. Ed. Esther Schor. Cambridge: Cambridge UP, 2003. 116-50.
- Mcwhir, Anne. "'Unconceiving Marble': Anatomy and Animation in *Frankenstein* and *The Last Man*." *Mary Wollstonecraft and Mary*

- Shelley*. Ed. Helen M. Buss et al.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1.
- Mellor, Anne K. "Blake, the Apocalypse and Romantic Women Writers." Fulford 139-52.
- . "Love, Guilt and Reparation: *The Last Man*." *Mary Shelley: Her Life, Her Fiction, Her Monsters*. New York: Routledge. 1989. 141-69.
- Melville, Peter. "The Problem of Immunity in *The Last Man*." *SEL 1500-1900* 47.4 (2007): 825-46.
- . *Romantic Hospitality and the Resistance to Accommodation*. Ontario: Wilfrid Laurier UP, 2007.
- Paley, Morton D. "Envisioning Lastness: Byron's 'Darkness', Campbell's 'The Last Man', and the Critical Aftermath." *Romanticism* 1 (1995): 1-14.
- . "*The Last Man*: Apocalypse Without Millennium." Fisch et al. 107-23.
- Roe, Nicholas. "Pantisocracy and the Myth of the Poet." Fulford 87-102.
- Ruppert, Timothy. "Time and the Sybil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Studies in the Novel* 41.2 (2009): 141-56.
- Sanders, Valerie. *The Brother-Sister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New York: Palgrave, 2002.
- Stafford, Fiona J. *The Last of the Race: The Growth of a Myth from Milton to Darwin*. New York: Oxford UP, 1994.
- Wagner-Lawlor, Jennifer A. "Performing History, Performing Humanity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SEL 1500-1900* 42.4 (2002): 753-80.
- Web, Samantha. "Reading the End of the World: *The Last Man*, History, and the Agency of Romantic Authorship." *Mary Shelley in Her Times*. Ed. Betty T. Bennet and Stuart Curra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2000. 119-33.
- Wells, Lynn. "The Triumph of Death: Reading and Narrative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Conger et al. 212-34.

Abstract

Paradise as Alien Future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Jiwon R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the formal possibilities and impossibilities of the ideal society portrayed in Mary Shelley's *The Last Man*, focusing on how Shelley imagines the future. Surrounding the anxieties and expectations triggered by the French Revolution, the political discourse of England in the late 1700's and early 1800's consisted of apocalyptic fear along with millenarian hope. Mary Shelley, looking back to the national past teeming with expectations and anxieties about the future, criticizes blind faith for paradisiacal future, which hides fear of the alien future and can lead to violent exclusion of the alien; however, she also refuses to succumb to the fear that the ideal may fail by redefining the future as essentially fearful and hostile. This novel shows that the key to overcoming the past failure lies in embracing the insecure but hopeful nature of the future.

Chapter 1 examines the utopian expectations Shelley's characters hold for the future and their limits. The leading characters of *The Last Man* define human nature as the sensibility that enables man to influence each other and ultimately melts down the boundary between men. They endeavor to awaken this sensibility so as to draw the whole humanity into the bond of unconditional love and gratitude. The blueprint for the ideal society, however, can easily turn into the pressure to conform to the a specific cultural convention when unconditional love and gratitude become an ideal that is one-sidedly defined and educated. Their version

of the ideal society, failing to provide the an alternative to the preexisting society, instead functions to sustain and justify it.

Chapter 2 focuses on the process through which unexpected disaster, the plague, dismantles the leading characters' expectations of the future. The plague that brings about the apocalypse questions the contradictory premises of their idealism, which relies for its hope on human sensibility but refuses to be influenced and changed in turn. The plague reveals relying on the human sensibility entails the lethal possibility of infection: a weakness open to external influence. Wherefore an attempt to defend human society and the human against the plague is doomed to failure.

Chapter 2 focuses on the process in which an unexpected disaster, the plague, dismantles the leading characters' expectations of the future. The apocalyptic plague questions the contradictory premises of their idealism, which depends on the possibility of human sensibility but meets its limit in the refusal to be influenced and changed in turn by the other. The plague reveals that relying on human sensibility entails the lethal possibility of infection and the vulnerability of being open to external influence. Therefore, an attempt to defend the human and human society against the plague is doomed to failure.

Chapter 3 argues that the unforeseeable future holds the possibility for an authentic universal paradise. A post-pestilential nature rid of humanity takes on the form of a perfectly harmonized paradise,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the nightmarish and completely alienating environment for the sole human survivor Lionel. This paradise parodies and discloses the selective universality of the version o ideal society cherished by Lionel and his friends. The painful experience of the post-pestilential world, however, leads Lionel to the realization that the unpredictability of the alien future that thwarted their vision of future paradise also precludes the despair that no chance is left for human society. While an encounter with the unknown is always accompanied by a fearful possibility, this encounter offers the chance for the last man to

reach beyond the painful present.

Chapter 3 argues that the unforeseeable future holds the possibility for an authentic, universal paradise. The post-pestilential nature rid of humanity takes on the form of perfectly harmonized paradise,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nightmarish environment for the sole human survivor Lionel and thereby completely alienating him. This paradise parodies and discloses the selective universality of Lionel and his friends' version of ideal society. The painful experience of the post-pestilential world, however, leads Lionel to the realization that the unpredictability of the alien future that thwarted their vision of the future paradise also precludes despair for the future of human society. While an encounter with the unknown always accompanies fear, this encounter offers the last man a chance to reach beyond the painful present.

Keywords: Mary Shelley, The Last Man, future, utopia, paradise, universality, idealism, the alien

Student Number: 2011-20032